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8호 【루계 제25892호】 주체107(2018)년 1월 18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지도자, 레바논근로자련맹 총비서, 말레이시아중국인당 총서기, 만마린명련대성발전당 총비서,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 수리아아랍민주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수리아 알 아흐드 알 와타니당 총비서, 캄보쟈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캄보쟈쿠푼씬메크당 위원장,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인도네시아어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위원장과 총서기, 인디아인민당 고위지도자,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로씨아민족국국전선 위원장, 로씨아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공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 체히-모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이딸리아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 아프리카민주련합-기네민주당 총비서, 나이제리아부흥진보당 전국위원장,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위원장,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총비서, 세네갈사회당 총비서, 세네갈독립로동당 총비서, 꽁고로동당 총비서, 통일된 민주꽁고인협약 전국위원장, 민주꽁고공산당 총비서, 민주꽁고로동당 총비서,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에찌오피아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 도미니까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관계비서,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정치비서국 총조정자,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 자유두료동맹을 위한 페루민족독립운동 위원장, 우루과이3월26일운동 위원장과 세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에스빠냐인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이란이슬람료련합당 부총비서, 로씨야련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카나다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 말리를 위한 련합 3부위원장, 민주꽁고 루뭄바주의통일당 상임비서, 에찌오피아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미국로동자세계당 림시전국위원회 비서국 성원,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 및 국제비서,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김일성김정일키금리사회 공동리사장, 이딸리아종합루자그룹 리사장,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부리사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부리사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 리사,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전략위원회 서기장을 비롯하여 네팔, 말레이시아, 만마, 몽골, 싱가포르, 중국, 캄보쟈, 타이, 파키스탄,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로씨아, 벌가리아, 벨라루씨, 스위스, 스웨리에, 슬로베니아, 체스꼬, 프랑스, 핀란드, 뽈스까,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슬란드, 이딸리아, 기네, 나이제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모잠비끄, 세네갈, 잠비아, 민주꽁고,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메히꼬,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볼롬비아, 페루, 아르헨띠나, 에꽈도르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전문과 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생은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걸출한 령도자, 위대한 정치가,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귀한 한생이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존함은 사회주의수호의 승리의 표대로 빛나고 있으며 그이의 영상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깊이 간직되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과 편지들에서 그들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들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연구보급, 단체들 성명 발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대한 독보회가 노르웨이, 이슬란드, 메히꼬, 기네에서 3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독보회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는 조선인민이 올해에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침이다, 그이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은 올해에도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안아올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슬란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 및 친선협회 서기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국통일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조선인민의 세기적념원이다.

미국은 조선이 핵강국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당국은 불신과 대결자세를 버리고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낼것이다.

기네 김정일주의연구소조 위원장은 올해는 핵강국, 로케트강국인 조선의 존엄이 더욱 높이 과시되는 해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기네 기꼬프레스총회사 행정책임자는 김정은각하의 신년사에 대한 세계적인 반향이 대단하다, 신년사를 통하여 백두령장의 품격과 자질을 더 잘 알게 되였다, 조선은 비록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더욱 존엄떨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이슬란드에서 진행된 독보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하여 여러 나라 단체들이 4일과 8일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신년사에서 조선의 북과 남이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이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

조국통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립장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화국정부와 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련대성을 보낸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청년소조는 조선의 통일문제는 철저히 조선민족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실현되여야 한다, 조선인민은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나라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고 성명하였다.

슬로베니아조선친선협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께서는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하면서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뽈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탐구를 위한 국제친선발기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신년사에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전체 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인민적인 총공세로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전력생산의 불길 세차게 타오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수풍발전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수풍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이 발전설비와 변전설비들에 만가동, 만부하를 걸면서 전력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수풍발전소 일군들은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발전기와 변압기대보수를 다그치면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선전선동사업을 화선식으로 활발히 벌리고 긍정적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로동자, 기술자들을 전력생산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발전소참모부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근무성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한편 발전설비와 변전설비들에 대한 대보수를 다그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고있다.

발전소에서는 발전기와 차단기, 강형군1호발전기의 변압기대보수를 1월 중순까지 끝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기술자, 기능공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혁신의 불길은 1발전직장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직장에서는 효률적인 운전조작방법을 받아들여 적은 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한편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찾아 퇴치하면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전기직장과 기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전력생산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발전기와 차단기대보수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돌격전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2발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강형군1호발전기의 변압기대보수에서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고있다.

수력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언제를 보다 견고하게 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매일 맡겨진 작업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려는 수풍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력생산의 동음은 높이 울리고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례성강발전소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올해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례성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발전소당조직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도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발전효률을 높이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해 례성강청년2호발전소 2호기의 수차효률을 높인 경험에 토대하여 발전소에서는 올해에도 발전기의 효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운전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최대한 물을 적게 리용하면서도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히 해나가고있다.

참모부서의 일군들은 현실에 깊이 들어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근무성원들의 책임성을 높여주는 한편 전력생산지휘를 전두적으로 하고있다.

발전소에서는 현존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면서 발전설비들의 보수와 개건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올해 1.4분기에 계획된 발전기들의 대보수를 끝내기 위한 준비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드는것과 함께 설비개조를 빠른 시일안에 할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따라세우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며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례성강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도안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열의안고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신경섭

대상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대상설비생산에 한결같이 떨쳐나 련일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굴지의 기계제작기지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해에 들어와 단천발전소, 홍주청년4호발전소 건설,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에 필요한 각종 제관품들과 가공품, 주강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의 그 어느 전투장에나 구호와 표어들이 나붙고 붉은기들이 세차게 펄럭이고있다. 이곳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중요대상설비생산에서 기업소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따라세우고있다.

대중속에 들어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의 사상과 내용을 깊이 새겨주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어렵고 부족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련속공격전을 들이대며 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발전설비제관직장, 대상설비제관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제관작업속도를 부단히 높이고있다. 이들은 단천1호발전소 1개 호기의 발전기회려실제작에 필요한 제관품제작을 끝낸 기세로 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발전설비1가공직장, 대형기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공정간맞물림을 짜고들어 제관품제작에 필요한 각종 가공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단조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부단히 높여 4일동안에 홍주청년4호발전소 발전설비의 수력타빈안내장치생산에 필요한 단조품생산을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형기계직장과 보이라제관직장에서는 작업반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수력타빈안내장치조립에 필요한 가공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열처리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백t의 주강주물품의 열처리작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첫 전투에서부터 높은 실적을 기록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새로운 목표점령을 위하여 총진격해가고있다.

공무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대형기계직장의 천정기중기를 짧은 시간에 수리하여 대상설비생산을 보장하였으며 련합기업소안의 가공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금 련합기업소안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밑에 맡겨진 대상설비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최영조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눈부신 과학연구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

국가과학원에서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국가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17일에 진행되였다.

국가과학원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동지의 보고에 이어 부원장 도정철동지, 혁명사적관 관장 차성호동지, 종이공학연구소 소장 리영일동지,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초급당위원장 리영호동지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올해의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여 과학자들이 이룩한 성과를 치하하시고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새로 개건한 국가과학원 혁명사적관과 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과학자들을 위해 대해같은 온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그들은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응전략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있다고 강조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휘황히 밝혀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국가과학원의 모든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높은 리상과 꿈을 안고 눈부신 과학연구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전답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서 국가과학원이 과학기술의 기관차로서 기치를 들고 힘차게 내달려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종자를 바로 잡고 력량을 집중하며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자력자강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기술인재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이들을 존중해주고 연구사업과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조건보장을 잘 해주는것과 함께 국가과학원과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새모습에 맞게 더 잘 꾸려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사공장에서 — 본사기자 최충성 촬영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김정숙평양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일념안고 생산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매일 석탄생산계획 1.2배로 넘쳐 수행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석탄생산에 적극 떨쳐나섰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석탄생산성과로 빛내일 불타는 일념안고 이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1.2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는데 기적창조의 열쇠가 있다는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들끓는 막장들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는 한편 굴진과 채탄, 운반 등 전반적인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룡북청년탄광에서 기본굴진과 준비굴진에 힘을 넣어 많은 예비채탄장들을 마련해놓고 생산을 즐기차게 내밀고있다.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섰다는 책임감을 자각한 덕촌갱의 탄부들은 굴진속도를 최대로 높이고 능률적인 채탄방법들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수행률을 130%이상 끌어올리고있다.

고건원탄광에서는 갱들사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 착암기, 압축기 등 막장설비들에 대한 보수정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깐지게 하며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석탄증산으로 당을 받들어나갈 한마음으로 오봉탄광의 탄부들은 전차, 탄차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빈틈없이 하고 캐낸 석탄을 제때에 운반하여 석탄산을 높이 쌓고있다.

보장단위 로동계급도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여러가지 공구와 부속품생산을 적극 따라세우고있다.

본사기자

정 론

자 력 자 강 의 고 향 집

우리는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국가과학원 구내에 서있다.

한겨울의 차디찬 바람도 여기에선 훈풍처럼 가슴에 흘러드는듯, 불밝은 연구소의 창문마저도 정겹은 눈동자처럼 어려와 발목이 시도록 끝없이 걷고만싶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의 첫 현지지도자욱이 새겨진 곳, 2018년에 조선이 나아갈 길을 예측하며 세계가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속에 올해의 첫문을 과학으로 여신 우리 원수님의 심원한 혁명세계에 심장이 용암마냥 끓어번지고 눈빛은 희망으로 불탄다.

이름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이 메아리쳐오는 절세위인의 그날의 가르치심, 우리 과학자들의 두뇌에서 나온 창조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곳은 자력자강의 보물고,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큰 진폭을 안고 천만의 심장에 울려퍼지고있다.

자력자강의 고향집!

세상에 이런 말은 없다. 지구상에 과학자들은 많아도 이런 최상최대의 믿음을 받아안은적이 그 언제 있어보았던가.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돌아보신 국가과학원의 과학전시관에 들어서면 어찌하여 그이께서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라는 부름을 안겨주시였는지 그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가지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크지 않은 집이다. 허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만목의 보물들이 꽉 차있어 세상에 이런 희한한 집도 있는가 하는 찬탄이 절로 터져나온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자그마한 생물소편으로부터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로 만든 질좋은 려과종이, 흙에서 뽑아낸 망간정광도 볼수록 가슴뿌듯하고 우리의 생활과 더욱 가까와지고있는 나노기술성과들도 소중하다. 땅속에서 억대의 보화를 한꺼번에 캐냈다 한들 이렇듯 마음흐뭇하랴. 정말 과학이 못하는 일이 없다.

여기서는 우리 시대가 한눈에 다 보인다. 주체의 붉은 쇠물이 펄펄 쏟아져나오는 자랑찬 현실도 보이고 경공업공장들에 휘몰아치는 혁신의 불바람도 뜨겁게 안아보게 된다. 그 이름만 외워보아도 가슴설레이는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설계도가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 펼쳐져있다. 지경밖에서는 원쑤들이 그 아무리 제재의 찬바람을 몰아와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슬기의 토양에서 천만가지 행복의 씨앗들이 이렇게 억세게 움터나고있으니 이곳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의 래일이 기약되어있는 작아도 큰 집이 아닌가.

고향집, 불러만 보아도 소중하고 따뜻한 정이 불붙처럼 차오른다.

마치 나서자란 자기 집뜰안에 들어선것만 같다. 자력자강의 창조물이 일떠서는 곳은 온 나라 방방곡곡이여도 그 많고많은 자력갱생의 종자들이 과학기술의 토양에서 움트고 열매로 무르익는다는 생각, 행복의 모든 창조물들이 여기서 싹트고 가지치며 이 땅의 매 집집마다, 우리의 일터마다 흘러든다는 생각에 태를 묻은 고향처럼 더더욱 따스함과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이곳이다.

자력자강의 새싹이 움트는 요람, 행복의 샘줄기가 끝없이 솟구치는 창조의 저수지, 비약의 첫걸음마를 떼여주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곳!

진정 탈리는 말할수 없다. 자강력을 낳는 어머니는 다름아닌 주체의 과학기술이다.

자력자강의 고향집, 바로 여기에 과학기술이 비약의 생명선으로 되고있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 과학자들이 조국과 인민의 미래를 두어깨에 걸머진 혁신부대답게 부강번영의 대문을 앞장에서 힘차게 열어제끼기를 바라시는 절세위인의 최상최대의 믿음이 비껴있다.

오늘날 경제의 자립적발전은 과학기술로부터 시작된다. 자력자강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동력이라면 그 동력은 과학기술에 원천을 두고있다. 자력갱생의 무쇠마치도 과학기술로 더욱 강해지고 그 마치로 다질 만복의 《소재》들도 다름아닌 우리 과학자들의 두뇌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위대한 승리를 떨친 지난 2017년의 자랑찬 화폭을 놓고보자.

세계를 뒤흔든 《3.18혁명》, 《7.4혁명》의 뇌성도 과학의 힘과 더불어 우렁차게 터쳐진것이고 원쑤들의 제재책동을 물거품으로 날려보내며 경공업부문에서 쏟아져나온 가방폭포, 이불폭포도 다 과학의 힘으로 이루어진것들이다.

그 위력한 과학의 힘에 받들려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고 과학기술의 기관차가 질풍같이 내달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가는 기적이 펼쳐진것이 아닌가.

제국주의자들이 만능의 무기처럼 휘두르는 제재가 오직 조선의 과학앞에서만은 먹을 추지 못하군 하였으니 원쑤들의 제재보다 강한것이 주체과학이고 그 위력은 무궁무진하다는것을 지난 2017년이 자기의 눈부신 화폭으로 증명해보였다.

오늘의 시대야말로 과학으로 우리의 힘을 키우고 과학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여주고 과학으로 우리의 찬란한 꿈을 꽃피워가는 과학기술대진군의 시대이다.

자력자강의 고향집, 이 부름에서 우리는 과학을 자력자강의 열쇠로 더욱 굳게 틀어쥐고 전략국가의 지위에 맞게 전반적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하루빨리 올려세우려는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포부와 확고부동한 신념을 더욱 깊이 새기고있으며 천만을 과학기술대진군에로 총궐기시키는 장엄한 돌격나팔소리를 듣고있다.

우리 당이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길에서 억세게 틀어쥐고있는 백승의 검인 과학기술!

그로 하여 더욱 희망차게 밝아올 번영의 새세상,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꽃펴날 천하제일강국의 아름다운 미래가 가슴에 뜨겁게 어려온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참으로 2018년에 우리가 올라야 할 승리의 령봉은 그 얼마나 높고 거창한것인가. 금속공업의 주체화실현으로부터 농업생산에서의 눈부신 앙양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그 중대하고도 방대한 과제들…

지금이야말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만리마의 속도로 무섭게 내달릴 때이다. 우리의 이 드높은 목표와 과감한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원쑤들이 사상 최악의 고립압살책동에 매달려 고있어도 우리 인민의 신념과 애국충정의 심장, 우리의 과학자들의 두뇌만은 제재할수도 봉쇄할수도 없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들!

그들은 그 이름과 심장의 열도부터가 다르다.

과학자, 누구는 그 부름을 가리켜 인류지성의 개척자라고도 말하고 또 누구는 뛰어난 재능과 두뇌의 주인공이라고도 말한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그 모든것을 초월하는 애국자, 조국과 인민을 위한 열혈투사들이다.

지금도 눈에 생생한 피끓는 구호, 화선용사들의 불같은 웨침인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전사대 앞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이것이 국방과학전사들만이 아닌 이 조선의 모든 과학자들의 억센 신념이고 의지이다.

전화의 나날에는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라는 불같은 웨침을 안고 우리의 리수복영웅이 적의 화구를 막았다면 오늘의 이 시대에는 강대한 나의 조국, 나의 인민을 위하여라는 애국의 부름을 리치며 우리의 과학자들이 가장 어려운 모퉁이마다 한몸을 육탄으로 내대며 불사신처럼 싸우고있다.

그 정신의 이름은 곧 전사이고 그 창조의 속도가 낳는 기적은 단번성공, 완전성공이다.

인민들의 집집에 흘러들 더 밝은 빛을 그려보며 전력생산전투장에서 새 기술도입의 남모르는 헌신을 바쳐간 미더운 과학자들, 화상을 입으면서도 《내 몸에 입은 상처야 무슨 대수입니까.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기쁨을 안겨줄수만 있다면 이 몸이 그대로 불붙는 석탄덩어리가 되여 보이라의 화실에 날아든대도 한이 없습니다.》라고 흔연히 말하던 과학자들의 그 진정어린 목소리를 잊을수 없다.

함구의 먼길에 시련인들 얼마나 많겠는가고, 누가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한길을 가는 그 정신에 머리가 숙어진다는 우리의 말에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이 절절히 터놓던 목소리는 또 얼마나 심장을 울렸던가.

《한시바삐 단번성공하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유일한 실천입니다. 조국의 짐을 하나라도 덜어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한초라도 더 빨리 기쁨의 보고를 올리자면 우리는 반드시 단번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빨리 달려야 그만큼 조국의 미래가 앞당겨질것이 아닙니까.》

오직 당과 조국, 인민만을 아는 이런 혁명적이고도 애국적인 과학자부대를 우리 원수님께서 키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정이 그대로 피와 살이 된 우리의 과학자들을 소중히 품에 안아 세상에 없는 행복의 금방석에 앉혀주시고 그들과 한전호에서 생사를 함께 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오늘은 특별상금도 안겨주시며 비약의 나래를 또 한껏 펼쳐주시였으니 절세위인의 하늘같은 그 믿음이 그대로 억척의 주추가 되고 기둥이 된것이 조선에만 있는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다.

이런 고향집을 가진 나라는 그 어떤 천지지변에도 끄떡없다. 이런 미더운 과학자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몇천개의 수소탄을 가지고 있는것보다 더 위력한 힘으로 된다.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참으로 크나큰 내 조국의 또 하나의 전략자산이다.

주체조선의 과학자들이여, 우리 당이 내세워준 자력자강의 고향집의 주인들답게 만리마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잡고 시대의 앞장에서 질풍치며 내달리라.

조국은 시련을 헤치고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험난하다. 이 나라의 과학자들이라면 누구나 조국의 중하, 인민의 시련을 자기의 뼈와 살에 새기고 이 땅 어디서나 찾는 애국자, 최첨단돌파전의 《홍길동》이가 될 때 조국은 더 큰 비약의 나래를 펴고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해 최대급행으로 질주할것이다.

자력자강의 고향집과 더불어 행복의 만리길은 끝없이 뻗어가리니 우리는 가리라, 희망을 안고, 신심을 안고 공화국창건 70돐을 경축하는 승리의 광장으로, 9월의 광장으로!

뜻깊은 1월이다. 세상에서 제일 원숙한 정치원로이시고 인류지성에 도통하신 천하제일위인이신 우리 원수님께서 과학전사들과 함께 어깨를 겯고 올해의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가신다.

희망차다. 찬란하다. 내 조국의 미래는!

보인다. 들린다. 이 고향집에서 마련된 자력자강의 불씨들이 인민의 웃음꽃으로 피여나는 행복의 만경화가, 우리 인민들이 더 높이 터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박 옥 경

생산에 앞서 관심하신 문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풍모에 있어서나 인간적풍모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해방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흥남비료공장(당시)을 현지지도하시던 때에 있은 일이다.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전해직장에 들어서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현장온도가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공장일군들이 그에 대하여 대답을 올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얼마까지 오르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50℃까지 오릅니다.》

한 일군이 대답을 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떻게 선선하게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고 하시며 사색깊은 안색을 지으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올릴수가 없었다.

전해직장에서는 전기분해로 생산공정이 이루어진것만큼 현장온도가 높아지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로 생각해왔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산량이 좀 떨어지더라도 로동자들의 건강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신중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잠시후 중앙통로로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넓은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로동자들이 저렇게 밤을 밝혀가며 전해조복구를 다그치고있는데 그럴수록 동무들은 그들의 생활조건과 로동조건을 개선해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이 울 안은듯 달아올랐다.

로동계급을 위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시면 작업장의 온도에 대하여 그렇듯 깊은 관심을 돌리시랴.

이어 류안직장 로화기실에 들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원심분리기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곳에서는 한 운전공이 분리기벽에 붙은 비료를 삽으로 깎아내고있었다.

운전공의 작업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일이 힘들지 않는가, 하루 몇시간씩 일하는가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나서 몸소 삽을 드시고 분리기벽에 두텁게 붙은 비료를 깎아내기 시작하시였다.

한동안 일손을 놀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허리를 펴시며 앞으로 일을 헐하게 하도록 해야 하겠다고 그리고 실내를 더 밝게 하며 가스냄새도 제거하고 열풍도 낮추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일본놈들은 로동자들을 이런데서 일을 시켰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다고, 꼭 고쳐주어야 한다고 또다시 간곡히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포화기실아래서 원심분리기에서 떨어진 비료를 실은 밀차를 밀고가는 로동자들을 보시고도 해방된 오늘에 와서 왜 일을 저렇게 하겠는가고 하시며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일을 헐하게 할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해야 한다. 우리 로동계급이 해방을 맞이한 보람을 느낄수 있게 작업방법을 꼭 고쳐주어야 한다.…

생산에 앞서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을 걱정하시여 벌써 몇번째나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절절한 당부에 일군들은 종시 눈금을 적시고야말았다.

공장을 돌아보시며 거듭하신 간곡한 당부.

이것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들중에서 하나의 자그마한 일화에 불과하다.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시였던 숭고한 인민관을 뜨겁게 절감할수 있다.

본사기자 정 순 학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년운동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심장깊이 새기고있다. —청년운동사적관에서— 김 광 림 찍음

필승의 락관을 안겨주시며

강계정신!

그것은 승리의 신심과 락관으로 충만된 정신이기도 하다.

강계정신에는 가는 길 험난해도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안고 투쟁하고 창조하는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구현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랑만이 없이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갈수 없고 미래를 위하여 한몸바쳐 투쟁할수 없습니다.》

20년전 눈보라사납던 1월에 이어 그해 6월 또다시 자강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공장을 돌아보시였다.

이 공장 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을 보시며 힘을 얻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보시오, 우리 로동계급의 기상이 얼마나 장한가 말이요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여기에는 생활상곤난을 겪으면서도 절대로 기대걸음 떠날수 없다고 하면서 일터를 비우지 않은 이곳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강의한 의지,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당만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흥륭한 래일이 온다는것을 확신하는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 신뢰의 정이 뜨겁게 담겨져있었다.

이우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에게는 재더미를 헤치고 사회주의를 일떠세운 억센 주먹과 무쇠마치가 있습니다, 새 사회의 주인,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된 우리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하고있습니다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상기하시였다.

그 구호는 그이께서 공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느 한 련합기업소에서 보신 구호였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건물의 벽에 써붙인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보시고 아주 좋은 구호라고, 정말 좋다고,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적랑만과 락관주의가 반영된 훌륭한 구호라고 하시면서 몇번이나 구호를 되새겨 읽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구호를 다시금 외우시며 우리 로동계급의 거세찬 슴결이 맥박치고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있는 한 우리의 사회주의는 끝없이 번영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그곳 련합기업소에서 본 그 구호처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로동계급과 함께 웃으며 공장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고있단 말입니다.

호탕하게 웃으시는 그이를 따라 일군들도 로동자들도 즐겁게 웃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갑시다라고 큰소리로 말씀하시며 활달하게 걸음을 옮기시였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최후의 승리는 신념의 강자들에게 있다는것을 새겨주는 참으로 뜻깊은 구호이다.

신념과 락관이 넘치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것은 우리 인민이 혁명의 길에서 새긴 진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혁명적락관주의를 체질화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의 날을 앞당겨오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도 언제나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고있다.

본사기자 림 정 호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발전의 중요한 요구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가 벌어지고있는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계급교양사업을 한시도 늦추거나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계속 심화시키고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이 전진할수록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법이다.

혁명의 승리적전진은 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한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담보된다. 우리 혁명이 년대와 년대들을 거치며 위훈으로 수놓아올수 있은 중요한 요인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해치려는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결사의 투쟁을 벌려왔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고있다. 이에 집결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미제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절멸》에 대하여 떠들대면서 가장 횡포한 침략전쟁책동과 야만적인 제재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오늘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중차대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계급의식으로 무장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죽음을 당하였던 신천땅의 피의 교훈은 결코 먼 과거사가 아니다. 피맺힌 력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사회주의의 승리봉에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휘날리기 위해서도 계급교양을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현시기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의 승리는 무적의 군력과 함께 사상정신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총대를 쥔 군대와 인민의 계급의식이 무디고 사상에 녹이 쓸면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있어도 맥을 추지 못한다. 미제의 교활성을 가려보지 못하고 스스로 핵자산을 포기한 나라들의 비참한 운명은 우리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미제는 국제법도 세계여론도 안중에 없는 리성을 잃은 전쟁광신자들이다. 총대와 신념이 강하면 굽어들다가도 기회만 조성되면 침략의 도화선에 서슴없이 불을 다는자들이 승냥이 미제이다. 오늘 적대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라 명을 늘어놓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계급적각성이 해이되기만을 기다리는 적들의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반제투쟁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앞에서 달려드는 로악한 강도무리가 아니라 원쑤에 대한 환상이다. 적대세력들이 최후발악하고있는 오늘 주적관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계급투쟁의 과녁을 잃게 되며 그렇게 되면 혁명의식이 마비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게 된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공화국은 무적의 군력을 가진 불패의 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간고분투하여 마련해놓은 무진막강한 군력이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자면 천만군민이 견결한 반제계급의식을 만장약하여야 한다.

미제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전략적동반자》로 내세웠던 국가이든, 큰 나라이든 가림없이 위협하고 제재압박을 가하는 철면피한 무리가 미제이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있는 한 공고한 정화란 있을수 없다. 총대가 강하다고 하여 마음의 랑개를 풀어놓거나 계급적각성을 늦춘다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 전쟁도 사상적해이가 불러오고 피의 비극도 계급의식이 무딘데서 초래된다. 이것은 진리이며 법칙이다. 우리는 총대가 강할수록 계급교양에 더 큰 힘을 넣어 조국수호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현시기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책동을 짓부시고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 이 땅우에서는 우리의 자강력과 야만적인 제재압박과의 첨예한 대결전이 벌어지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며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세계를 향하여 질풍노도쳐야 하는 오늘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적개심은 원쑤들이 보란듯이 우리 조국을 더 잘살고 더 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로 빛내이려는 절사의 투쟁정신을 날게 한다. 지금 우리 인민은 력사에 류례없는 가장 극악한 조건에서도 추호도 동요하거나 남을 쳐다보지 않는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돌진해나가는 자력자강의 투사들이 우리 인민이다. 지난해의 엄혹한 시련속에서 이룩된 대비약적성과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제국주의를 압도하고 주체조선의 존엄을 빛내이겠다는 절사의 각오로 안아온 빛나는 승리이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바로 이것이 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한 우리 인민의 든든한 배심이다.

만리마진군속도가 빨라지고 경제의 비약적발전이 이룩될수록 미제와 추종세력들은 더욱 발악한다. 누구도 우리가 잘살고 강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적대세력들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의 힘과 기술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더 빨리 내달려 사회주의승리봉에 기어이 붉은기를 휘날리겠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계급의식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킬수록 만리마진군속도는 빨라지고 경제강국건설의 최후승리는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현시기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원칙을 굳건히 고수하기 위한 사활적인 요구이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사상의 대결이다.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투쟁에서 사상적대가 확고하지 못하면 승리할수 없다. 견결한 투쟁정신과 혁명적원칙성이 있어야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주의의 한길로 곧바로 나아갈수 있다. 혁명의 승리는 사상의 승리, 원칙의 승리이다.

지금 인민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고 돈주머니를 흔들면서 개인주의를 조장시키고 황금만능을 설교하고있는것이 미제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들에서 정치생활의 반동화와 함께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이 초래되고 경제가 파국적운명에 처하게 되였으며 종당에는 혁명의 붉은기가 내리워지게 된것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과 물질지상주의에 빠져 혁명적원칙에서 탈선한 필연적결과이다. 현시기 당에서 계급교양에 대하여 강조하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은 미제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수많은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침략전쟁연습을 요란스럽게 벌리는것과 함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떠들며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비방하는 비렬한 모략선전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금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제국주의반동들은 끊임없이 부르죠아사상문화를 들이밀고 심리전을 벌리면 언제인가는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가 무너지게 될것이라고 어리석게 타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것처럼 지난날에는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길잡이였다면 오늘날에는 침략의 주역을 놀고있다. 계급교양을 소홀히 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말려들어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병들게 되고 사회주의, 집단주의화원에 개인주의, 리기주의,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이 독초처럼 자라나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는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사상일군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감으로써 우리의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고 반제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김 병 진

당조직들은 모든 사업을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키자

인민을 위해 당조직이 있다

선교구역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전당의 당일군들이 가슴깊이 새긴것이 있다.

인민을 위해 당조직이 있고 당일군이 있다!

바로 이런 관점으로 인민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일거리들을 올해전투목표에 포아박고 과감한 실천의 첫걸음을 내짚은 당일군들속에는 선교구역당위원회 일군들도 있다.

지난 기간 인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놓은 이들의 사업과정을 분석해보면서 우리는 혁신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의 바탕에 무엇이 놓여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복무관점이 투철해야 일감이 보인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감을 찾겠는가 하는것은 일군들 누구나 고심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서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무엇때문인가.

지난 1월 3일 올해전투목표와 관련하여 열린 협의회과정을 놓고보자.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말에 두차례나 새해전투목표와 관련한 무분별협의회를 가졌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전투목표는 매우 치밀하게 세워져있었다. 특히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전투목표에 지난 시기에 비하여 훨씬 많은 일거리들이 반영된것을 두고 일군들은 못내 만족해하였다.

그러나 강명호구역당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아직 전투목표에 많은 문제들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한 가암뽐프장을 개건보수하는 문제와 승강기정상운영을 위한 전력선공사를 진행하는 문제, 선교식료공장에 콧고추장줄임생산공정을 확립하는 문제 등을 더 보충할것을 제기하였다.

그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새 일감들을 찾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1월 1일 저녁 어느 한 식료품상점에 나가 주민봉사정형을 료해한 구역당위원장은 주변에 있는 가암뽐프장에 들려보았다.

주민들의 먹는물문제는 구역당위원회가 늘 관심하는 문제였다. 지난해에도 구역당위원회에서는 무진1, 2동과 동메3동 주민들에게 먹는물을 정상공급하기 위한 가암뽐프장건설을 맡기하고 적극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었다.

가암뽐프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던 구역당위원장의 시선이 한곳에 멎어섰다. 한때 물원천지로 리용하던 곳이였다. 이곳의 시설을 환원복구하면 수천지로부터 물이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먹는물공급을 정상화할수 있다고 본 구역당위원장은 이 문제를 올해전투목표에 반영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다면 지금껏 많은 일군들이 무심히 스친 이곳이 왜서 구역당책임일군의 눈에는 물원천확보의 귀중한 예비로 비껴들었겠는가. 그것은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에서의 차이에 기인된다.

승강기정상운영을 위한 전력선공사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시기 전기사정으로 아빠트승강기들이 정상운영되지 못하였지만 일군들은 자금문제를 운운하며 해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구역당책임일군은 이것을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로 보고 방도를 모색하였다. 하여 군중적운동으로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고 해당 공장과 련계하여 공사에 필요한 1 800m의 까벨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인민들이 바라는 일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관점이 방도를 찾게 하였고 새로운 목표를 내세우게 하였던것이다.

그날의 협의회는 구역당일군들로 하여금 인민에 대한 복무관점을 두고 깊이 생각해보게 하였다. 그후 전투목표에는 많은 일거리들이 새로 반영되였다.

메기양어장에서 메기생산량을 이미 계획했던것보다 두배로 늘이는 문제, 영제동지구의 보도블로크를 교체하는 문제, 빨래집을 건설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위한 많은 문제들이 전투목표에 보충된것은 구역당일군들의 인민에 대한 투철한 복무관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실천의 기준－인민들이 좋아하는가

구역당일군들이 말하듯이 모든 일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 기간의 사업과정은 구역당위원회가 올해에도 자기가 설계한대로 인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지난해 가을 어린이교통공원을 건설할 때였다.

굴착과정에 상수도관이 파괴되여 선교3동 주민세대들에 먹는물을 공급할수 없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비상사건화하고 긴급협의회를 열었다.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도 주지 않게 있을수 있는 모든 정황을 예견하여 미리 대책을 세우지 못한 해당 일군들이 심각한 추궁을 받았다. 즉시적인 대책이 세워졌다. 필요한 상수도관을 해결해준데 이어 구역당일군들과 구역상하수도관리소일군들이 현지에서 이틀동안 긴장한 전투를 벌려 80m구간에 상수도관을 새로 놓임으로써 주민들에게 먹는물을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구역도서관에서 이동열람초소건물을 건설할 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처음에 건물은 선교2동의 어느 한 아빠트앞에 짓게 되여있었다. 그렇게 되면 두 세대의 살림집들에 해빛이 잘 들지 않게 되였다.

구역당책임일군은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일군들에게 단단히 경종을 울리였다.

인민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민들에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준다면 그것은 낯내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인민들이 좋아하겠는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것이 실천의 기준이다. …

구역당위원회에서는 해당 일군들에게 맞춤한 건물부지를 찾을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이렇게 되여 이동열람초소건물은 환경도 좋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열람에도 편리한 어느 한 휴식터에 일떠서게 되였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전개하며 총화, 평가하는것은 구역당위원회가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이다.

동메소학교울타리공사때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주고 장마철에 도로에 비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공사를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구역당일군들의 인민을 위한 좋은일하기수첩에 기록된 많은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깊이 새겨보게 되는것은 무엇인가.

인민을 위해 당조직이 있고 당일군이 있다!

바로 이런 관점이 사업성과를 담보한다.

본사기자 김순영

뜨겁게 품어주고 보살펴주어

금바위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며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들의 마음속고충과 생활상애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몇해전 금바위광산 초급당일군은 충성갱설비소대 보전공 김동무와 만나 담화를 한적이 있었다. 한생을 광부로 성실히 일해온 그였다. 그러던 그의 얼굴에 그늘이 져있었다.

아들이 법한 파오때문이였다. 혁신갱 굴진공으로 일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그의 아들은 나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밤에 오르고있었다. 그 일때문에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김동무의 말을 듣게 된 초급당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김동무의 아들에 대한 교양을 청년동맹조직에만 맡기고 관심을 돌리지 못한 가책이 컸다.

다음날 그는 혁신갱에 나가 김동무의 아들을 만나 교양사업을 진행하였다.

아들은 결함을 고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 결심은 며칠을 넘기지 못하였다.

때때로 출근시간을 잘 지키지 않았으며 맡은 일에서 실적을 내지 못하여 사람들의 좋은 평가도 받지 못했다.

김동무는 자기 집에 찾아온 초급당위원장에게 아들이 사람구실하기는 글렀으니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초급당위원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초급당위원장은 김동무에게 아들을 욕만 할것이 아니라 결함의 엄중성과 원인을 차근차근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이제는 나이도 되였는데 새 가정도 꾸려주자고 이야기하였다.

초급당위원장은 그후에도 자주 김동무의 아들을 만나 사업과 생활을 료해하고 참된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주었다. 제대군인처녀와 가정을 이루고 안착된 생활을 하도록 하였으며 가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적극 풀어주었다.

선광직장개건공사를 위해 청년돌격대가 조직될 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돌격대명단에 김동무의 아들도 넣어 그가 사상적으로 단련되도록 하였다. 그가 맡은 일을 잘하였을 때에는 널리 소개해주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 김동무의 아들은 점차 개준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당조직의 따뜻한 손길에 떠받들려 그는 혁신자로 집단의 사랑을 받게 되였고 김동무의 마음속고충도 깨끗이 가셔지게 되였다.

종업원들에게 기울이는 초급당일군들의 진정은 상처입은 자식을 두고 더 마음을 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뒤떨어진 종업원들이 인생의 길을 바로 걷도록 관심하며 이끌어주는데만 그치지 않았다. 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관심하며 뜨겁게 보살펴주었다.

두해전 1월 선광직장의 한 녀성로동자는 남편의 건강때문에 고민하게 되였다.

군사복무시절 다리를 다친 남편이 수술을 받고 완치되였었는데 근 20년이 흐르자 그 후과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초급당일군들이 환자와 함께 도와 중앙의 병원들에 찾아가 치료대책을 토의하였고 약재와 건강식품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음을 썼다.

환자가 평양시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때 지배인은 병원에도 찾아가 고무해주면서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도와주었다.

건강을 회복한 남편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올해신년사를 받아안고 첫 출근길에 올랐을 때 안해의 눈시울은 젖어들었다. 그것은 훌륭한 일군들을 키워준 어머니당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였다.

초급당위원회가 광부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는 나날에 광산은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지난해에는 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도 지니였다.

당조직들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종업원들을 틀어주고 그들의 생활을 보살펴줄 때 집단의 단결력이 강해지고 단위의 성과로 이어진다는것을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마음속에 깊이 들어갈 때

봉산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동지들사이에, 이웃들사이에 서로 돕고 진심으로 위해주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할데 대한 문제,

이것은 공장초급당위원장이 아래단위 당세포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신년사학습담화를 진행하면서 그루를 박은 문제의 하나였다. 이에 따라 경리당세포위원장 주형석동무는 학습을 깊이있게 한데 그치지 않고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리라 속다짐하였다.

다른 당세포위원장들 역시 집단의 모든 성원들을 미풍의 주인공들로 키워낼 결심을 안고 앞질러 달려갈 열의를 보이고있었다.

(문제는 불씨를 잘 찾아쥐는데 있다. 그 불씨가 어디에 있음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이후 전당의 당세포들이 끓는 때와 여느때없이 마음을 더욱 바쳐이게 되는 당초급일군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옳은 방법론을 세우는것은 어떤 사업에서나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음날 참모부의 한 일군을 만나기 위해 그가 어느 한 생산현장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현장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걸음을 멈추었다. 경리당세포 당원 리철학동무가 보여준것과 같은 제시된 과업에 비추어보며 그 자료를 기동적으로, 능숙하게 활용하였던것이다.

공장의 당세포위원장들 특히 경리당세포위원장이 느끼는바는 컸다.

교훈은 무엇인가. 늘 함께 사업하는 당원들속에, 그들의 마음과 생활속에 깊이 들어갈 때 미풍의 소유자들을 찾아낼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미풍의 주인공들로 키울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였다. 불씨는 찾아내기만 하면 그 사실들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신년사에서 리철학동무의 긍정적소행이 소개되고있었던것이다. 시간마다 뛰여오르는 작업반별생산실적이 통보된 후 한희선초급당위원장이 알려주는 긍정자료였다.

리철학동무가 이웃들을 위해 자기를 사심없이 바친 이야기, 당세포위원장인 자신도 미처 모르고있던 자료였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 알려진 그 이야기는 들을수록 감동적이였다.

열점의 녀성이 뜻밖에 심하게 상하였을 때 남먼저 달려와 병원에 긴급후송하고 입원시키였을뿐아니라 면회도 자주 다니며 빠른 시일안에 완쾌될수 있게 한 이야기, 인민반에서 물동은 반문제가 걸려 안타까와할 때 여러 동무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수송기재를 해결해준 이야기…

리철학동무의 미풍자료를 이야기하고난 초급당위원장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모든것이 부족한 때일수록 동지들사이에, 이웃들사이에 서로 돕고 진심으로 위해주는 미풍이 높이 발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였다. 그러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가 벌어지는 오늘 누구나 리철학동무가 보여준것과 같은 고상한 미풍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어버이로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의 일심단결은 더욱 공고히 다져질것이라고 말하였다.

후에 안데 의하면 초급당위원장은 부부가 한공장에 다니는 리철학동무의 가정을 두고 원심을 쓰며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가정방문을 하였었다. 그 기회에 이웃들과 허물없이 담화도 하며 그 사실들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신년사에서 이야기한 그 불씨를 찾아내기 위해 그 자료를 기동적으로, 능숙하게 활용하였던것이다.

공장의 당세포위원장들 특히 경리당세포위원장이 느끼는바는 컸다.

교훈은 무엇인가. 늘 함께 사업하는 당원들속에, 그들의 마음과 생활속에 깊이 들어갈 때 미풍의 소유자들을 찾아낼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미풍의 주인공들로 키울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였다. 불씨는 찾아내기만 하면 그 사실들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신년사에서 이야기한 그 불씨를 찾아내기 위해 그 자료를 기동적으로, 능숙하게 활용하였던것이다.

본사기자 리정수

알아보는데만 그치지 않고

룡천군 동신리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인민의 참된 충복!

이 무름앞에 떳떳하자면 일군들이 종업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여야 한다.

늘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생활을 속속들이 알아보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는 룡천군 동신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이곳 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좋은 점은 농장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활상애로를 겪는 문제를 빠짐없이 료해함뿐아니라 해결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는것이다.

살림집문제로 애로를 겪고있는 농장원세대들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주고있는 사실이 그러한 실례로 된다.

지난해 어느날 백영숙리당위원장은 제4작업반 농장원 홍동무가 갓 제대되여온 아들의 결혼식문제로 마음을 쓰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사연인즉 홍동무의 가정도 그렇고 제대군인 딸을 가진 사돈집에서도 식솔이 많아 결혼식날자를 정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이였다.

총대로 조국을 보위한 제대군인들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새 집을 마련해주고 결혼식도 남부럽지 않게 해주게 하자.

리당일군의 결심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얼마후 이들을 위해 세칸짜리 살림집이 마련되였다. 그 집에서 제대군인들의 결혼식이 뜻깊게 진행되였다.

그날 홍동무는 일군들의 진정이 어린 첫날옷을 입고 결혼상을 마주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렇게 절절히 당부했다.

당조직과 집단의 뜨거운 사랑과 정을 잊지 말라고, 고마운 어머니 우리 당을 위하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는것으로써 농사군의 본분을 다해가자고.

축산작업반 최동무의 아들이 영예군인이 되여 돌아왔을 때에도 리당일군들은 그가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 대책을 세워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후에는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낡은 집을 헐어 그 자리에 새 집을 번듯하게 지어주도록 하였다.

늘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생활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속속들이 알아보고 즉석에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리당위원회일군들은 물론 작업반 당초급일군들에게도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하여 지난해 농장적으로 오래된 살림집에서 불편을 느끼고있던 농장원들이 맡은 새 집들이 더 늘어나게 되였다.

살림집문제만이 아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농장원세대들에 땔감을 보장하는 사업도 잘하고있다. 특히 늙은이와 어린이들이 있는 세대들에는 땔감을 더 공급하도록 하였다.

온실남새와 비닐을 비롯한 후방물자를 공급할 때 역시 전쟁로병들과 전사자가족, 영예군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리당일군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농장원세대들에서 제기되는 생활상애로를 풀어주는 사업만은 놓치지 않고있다.

농장원들을 위하는 마음이 커갈수록 리에는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는 기풍이 확립되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는 물론 당정책관철에서 단합된 집단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다.

리당일군들은 물론 관리위원회의 일군들도 매일 5세대이상의 농장원가정의 살림형편을 알아보는 사업을 정상화하고있으며 걸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인민의 참된 충복이라는 무름앞에 떳떳하려면 이곳 리당위원회 일군들처럼 농장원들의 생활상애로를 속속들이 알고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집단의 단합이 잘되며 단위의 모든 일도 잘된다.

본사기자 장철범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걸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는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
－당창건기념탑에서－ 본사기자 찍음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창립 72돐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진행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창립 72돐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가 17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동지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박철민동지,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음악과 합창 《조선청년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 《뜨거운 넘원》, 청춘가요련곡 《로동당을 잘 만나 청춘이 빛나네》, 《황금을 뿌리어도 청춘은 못 사》, 《내 이름 묻지 마세요》, 시이야기 《영원한 태양의 청년강국》, 하모니카병창 《아직은 말 못해》,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을》, 혼성중창 《됩고싶었습니다》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독창적인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로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억세게 키워주시고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어버이의 손길아래 강화발전되여온 조선청년운동의 승리의 력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끝없이 이어지고있음을 힘있게 구가한 혼성중창 《청춘송가》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남성2중창 《황금산타령》, 상모와 장고춤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녀성독창과 방창 《바다 만풍가》, 남성4중창 《자력갱생 기치높이 다시한번 대고조로》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해가고있는 청년전위들의 전투적기상을 잘 보여주었다.

당중앙을 절사옹위하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경제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될 주체혁명위업계승자들의 드높은 열의가 기라병창 《붉은기높이 조선은 나간다》, 무용 《가리라 백두산으로》 등에서 뜨겁게 분출되였다.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나아갈 온 나라 청년들의 억척불변의 신념을 힘있게 과시한 공연은 시와 합창 《금방석》,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

수천개 단위가 청년전위모범초급단체의 영예를 지니고 많은 청년들이 중요부문에 진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당의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여야 합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연설에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에로 청년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전동맹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청년운동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갔다.

청년들속에 우리 당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을 뼈속깊이 심어주어 그들을 당의 위업에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억세게 준비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광세적으로 벌리였다. 이와 함께 모든 청년들을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닌 참된 애국자, 불굴의 혁명신념과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열혈투사, 계급투쟁의 맹수로, 높은 문화적소양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문명한 사회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동맹원들속에 들어가 청년들을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맹장들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진행하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였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사업조직과 적극적인 사상공세속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이후 30여개 단위가 김일성청년영예상과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수여받고 수천개의 단위가 청년전위3중모범초급단체, 청년전위2중모범초급단체, 청년전위모범초급단체의 영예를 지니였다.

10여만명의 청소년들이 당의 유일사상교양거점들을 더 잘 꾸리기 위해 수종이 좋은 수십종의 나무들과 꽃관목들을 심고 지성어린 물자들을 보내주었으며 많은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이 위급한 정황속에서 수령결사옹위의 고결한 풍모를 발휘하였다.

지난해 수천명의 청년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선에 용약 달려나갔으며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19만여명의 청년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수천건의 창의고안,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하였으며 80여개의 청년조림작업반(분조), 청년양묘작업반(분조)이 새로 조직되였다. 청년대학생들속에서 학습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13개의 학급과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대학생과학탐구상을 수여받았으며 수백명의 《우리 교실》문학상수상자가 배출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이후에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은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주체조선청년전위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와 전투적기질의 고귀한 결실이다.

본사기자 김진욱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

다수확열의로 충만된 과학적인 농사작전

농업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주의협동벌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리고있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비상한 각오를 안고 농사작전을 펼치고있는 농업성 일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농사를 잘 짓는것이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고 본다.

부상 리재현: 올해에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는것은 우리의 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워 적대세력들의 제재장벽에 통구멍을 내는 또 하나의 통쾌한 승리로 된다.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것처럼 혁명적인 총공세로 농업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 맹세로 애국의 더운 피를 끓이고있다.

기자: 높이 세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농업성을 비롯한 농업지도기관들이 어떤 방향에서 한해농사를 작전하는가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 듣고싶다.

부국장 리정록: 오늘의 총공세에서 농업전선이 들고일어날것을 바라는 당의 기대에 보답하는데서 우리 농업성 일군들이 맡고있는 몫은 참으로 크다. 새해에 성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신년사에서 농업부문앞에 제시해주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총적방향으로 틀어쥐고 작전을 펼치고있다.

특히 지난해농사경험과 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올해에는 랭습지, 염피해지, 불무쪽지 등 불리한 조건으로 소출이 떨어졌던 단위들을 추켜세워 어디서나 다수확을 낼수 있게 하는데 중심을 두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한다면 그 어떤 목표도 능히 점령할수 있다는 신심이 생긴다.

우리는 올해에 다수확단위의 대렬을 늘여나갈수 있는 현실적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웠다.

종자는 알곡생산에서 선차적이고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금 성과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에서 지방별, 품종별수요에 맞게 우량종자생산을 따라세우고 그 도입면적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추진시키고있다. 실례로 밭벼농사를 나라의 식량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과업으로 틀어쥐고 내밀어 《밭벼24》호를 비롯한 다수확품종들의 도입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낮은온도견딜성과 가물견딜성이 높은 이삭무게형밭벼품종들을 선정하고 물부족논, 논벼, 강냉이저수확지들에 밭벼를 심어 정보당 소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지도와 영농물자보장대책을 세웠다.

성에서는 다수확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모든 영농공정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내밀어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중시하고있다.

우선 과학기술전당 과학기술보급망을 통한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들과 협동농장들의 과학기술보급기지운영을 더욱 심화시켜 선진영농기술과 방법들을 제때에 보급일반화하게 하였다. 또한 농업성으로부터 협동농장에 이르기까지 물류러망을 통한 기상예보와 농작물생육예보, 영농기술문답봉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우리 농업성에서는 숙천군을, 도농촌경리위원회들에서는 시, 군들에서 1개 단위를 그리고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과 협동농장들에서도 1개 협동농장, 1개 작업반을 과학농사본보기단위로 정하고 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해주면서 영농물자보장을 선행시켜주어 과학농사경험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도록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영농공정별기술전습회, 보여주기, 기술경험발표회 등을 해당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과학농사가 농업근로자대중의 사업으로 되도록 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마른논갈이와 씨레치기, 깊은층비료주기와 간단물대기방법을 비롯한 물, 연유, 비료절약형재배방법들과 물정재배, 이랑재배, 두둑재배, 우렁이유기농법, 벼강화재배방법 등을 적극 받아들여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농작물생육을 개선하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기자: 농업생산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있는가.

국장 박경철: 올해에 우리 농기계부문앞에는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지금 각지 농촌들에서는 쌀로씨 당중앙을 옹위하려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를 대번하듯 새형의 트락또르와 화물자동차들이 동음을 울리고있다.

우리는 올해에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삼지연군, 백암군의 감자농사와 세포지구 축산기지운영에 필요한 종합밭갈이기계, 파종기, 먹이절단기를 비롯한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면서 지난해 시제품으로 생산한 벼종합수확기를 비롯한 여러종의 농기계들에 대한 운영시험과 지구장비제작을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려고 한다.

이와 함께 트락또르부속품들을 영농공정에 앞세워 생산보장하며 농업성 농기계연구소와 사리원트락또르부속품공장, 함흥련질농기계공장, 북청파수기계공장, 남시축산기계공장을 비롯한 농기계제작 및 부속품생산기지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세계적수준의 농기계들을 우리 식으로 설계하고 질좋게 만들어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일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대책들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있다.

기자: 새로운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진군길에 떨쳐나선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성과가 기대된다.

부상 리재현: 그렇다. 위대한 주체농법이 있고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긴 농업근로자들이 있기에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의 농사전망은 락관적이다.

강 금 성

지력을 높이는데 력량을 집중

천리마구역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천리마구역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커다란 격정과 환희로 끓어번지였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혁명의 년대마다 당의 위업을 충정으로 받들어온 궁지드높이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당정책 결사관철의 기상을 남김없이 발휘하자.

모두의 심장속에서 이런 웨침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논밭 정보당 30t이상의 거름을 실어낼 통이 큰 목표가 세워졌다. 이처럼 많은 거름을 생산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주저나 동요도 몰랐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철석의 의지가 그들의 심장속에 세차게 맥박치고 온 구역에 알곡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불같은 열의가 차넘치고있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일군들은 높이 세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해나갔다. 일군들은 구역안의 구석구석을 밟아보며 거름원천을 찾아냈다.

마음먹고 달라붙으니 거름원천은 얼마든지 있었다. 오수정화장들과 오수망들 그리고 1만수천개소에서 많은 거름을 확보할수 있었던것이다.

특히 오수정화장들의 바닥감탕은 나무랄데 없는 거름이였다. 주민세대들의 생활오수가 고이고 잘 썩어 쌓인 감탕에는 부식질함량이 많고 각종 미량원소가 들어있어 지력을 높이는데는 그지그만이였다. 감탕이 넓은 면적에 1m정도의 두께로 쌓여있기때문에 그 량도 적지 않았다.

일군들은 무릎을 쳤다. 역시 문제해결의 열쇠는 물끓는 현실속에 있다. 그들은 이런 확신을 안고 거름생산전투를 통이 크게 조직전개하였다.

25일동안에 올해 포전에 내기로 한 거름량의 50%에 달하는 오수정화장바닥감탕을 파서 실어내기 위한 높은 목표가 세워졌다.

이 전투에는 농장원들만이 아니라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의 로동자, 사무원들이 총동원되였다.

일군들이 남먼저 달려나와 일손을 잡았다. 곡괭이와 함마를 휘둘러대며 오수정화장의 얼음을 까내고 감탕을 파내는 일군들의 절반 일솜씨는 대중을 혁신에로 떠미는 불씨로 되였다. 전투장마다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충폭발시키는 구호와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 농장원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은 경쟁적으로 일자리를 폭폭 내였다.

땡빛 추위와 찬바람은 그들의 의지를 시험하려는듯 기승을 부리였으나 그 누구도 물러설줄 몰랐다. 추운 날씨는 오히려 감탕과거와 실어내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될뿐이였다. 파낸 감탕이 하루밤새 땡땡 얼어서 덩어리로 되기때문에 포전으로 실어내가는데 아주 좋았다. 감탕덩어리들이 시간을 다투며 계속 산더미처럼 높이 쌓이였다.

일군들은 감탕을 제때에 포전으로 실어내기 위한 조직사업도 전투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매일 감탕덩어리들을 가득 실은 수십대의 대형화물자동차들을 비롯한 통전기재들이 꼬리를 물고 포전으로 달려나가는 흐뭇한 광경이 펼쳐졌다. 다른 거름생산 및 실어내기전투장들에서도 날마다 높은 실적이 기록되였다.

천리마의 고향에 태를 묻고 자란 사람들로서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도 언제나 앞장에 서려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본사기자 황 철 민

흔한 원료로 효능높은 영양액을

청단군 청정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새해농사차비전투로 들끓는 청단군 청정협동농장에 가면 류달리 눈길을 끄는것이 있다. 농장에 흔한 원료로 효능높은 영양액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는것이다. 최근년간 이것을 리용하여 정보당 알곡생산량을 늘인 좋은 경험이 있기때문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올해에는 보다 높은 생산목표가 세워지고 그 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업들이 농장일군들의 구체적인 작전에 따라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며 과학기술의 덕으로 흥하는 농장과 작업반, 분조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게 하여 당의 과학농사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현실에서 다발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양액은 농장의 어디에나 흔한 너탄, 탈배설물, 버짐재를 가지고 만든다.

농장에서는 이 영양액을 리용하여 종자처리는 물론 시기별, 작물별로 일떳비료주기를 진행하였다. 확실히 영양액처리후의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았다.

종자처리만 놓고보아도 싹트기률은 종전보다 3~5%는 더 높았다. 특히 이 영양액을 리용하기 전에 비하여 정보당 논벼는 900여kg, 강냉이는 1.2t, 콩은 600여kg, 보리는 3.7t정도 더 증수할수 있었다.

처음 도입할 때에는 머리를 기웃거리던 농장원들이 오늘날에는 저저마다 이 영양액만 리용하겠다고 한다. 화학비료에 대한 의존심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생산원가도 극히 적다.

이와 관련하여 농장일군들은 지난 시기에 진행하던 후민산업생산때와 원료소비량을 대비해보았다. 원료소비량이 꽉 줄어든 반면에 실수률은 비할바없이 높았다. 특히 원가의 많은 몫을 차지하던 가성소다대신 농장에 흔한 버짐재를 리용하니 경제적이다.

산 및 알카리견딜성자재를 전혀 쓰지 않는것으로 하여 설비제작원가는 종전의 1/100도 안된다니 이 얼마나 실리적인가.

로력을 절약할수 있는 측면도 좋다. 종전에는 한해농사에 필요한 후민산업을 모두 생산하자면 한개 분조정도의 로력을 뚝 떼내야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한명이면 충분하다. 그러면서도 하루 생산량을 가지고 종전보다 4배가 넘는 포전에 리용할수 있다.

이렇게 효능높고 실리적인 영양액생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너탄의 리용방법이다.

이곳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너탄알갱이의 크기가 작을수록 후민산업실수률이 오른다고 한다. 때문에 농장에서는 겨울철에 캐서 적당한 크기로 무져놓았던 너탄을 영양액생산에 리용한다. 이렇게 하면 너탄이 풍화작용을 받기때문에 무스러뜨리기가 한결 쉽다. 결국 캐낸 너탄을 제로 칠 때 줄이 적게 든다.

이처럼 실리적이면서도 효능이 높은 영양액은 농장의 라슨갈기사장이 고심어린 노력끝에 완성한것이다.

그는 농장의 과학농사를 책임진 기술일군이라는 자각을 안고 종전보다 원가가 적게 들면서 비료효과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는 영양액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당조직에서도 그가 성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있도록 아낌없는 방조를 주었다. 또한 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다.

효능높은 영양액은 이렇게 마련되였다.

먼저 이 영양액을 농장의 일부 면적들에 도입하였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화학비료만이야 하겠는가 하면서 도리질을 하였다.

하지만 도입 첫해 제3작업반 4분조의 가을걷이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었다. 이것을 리용하여 알곡생산에서 농장적으로 앞자리를 차지하였던것이다. 그때부터 이 영양액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보다 좋은것은 농장원들의 마음속에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심이 더욱 굳게 자리잡은것이다.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이다. 누구나 라순킬기사장처럼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당의 과학농사방침관철을 위해 애쓴다면 어디서나 다수확을 낼수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성 일

2배이상의 거름을 생산

함주군 련포협동농장에서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드높은 열의안고 떨쳐나선 함주군 련포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최근 한주일동안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이상 되는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포전에 실어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땅에 유기질성분이 많으면 화학비료를 적게 치고도 농사를 잘 지을수 있습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농사를 본때있게 짓기 위한 작전을 펼친 농장일군들은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들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거름을 포전에 낼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일군들은 그 수행방도의 하나로 제7작업반구역에 있는 높의 바닥감탕을 파서 포전에 실어낼 대담한 작전을 통이 크게 조직전개하였다.

온 농장이 높바닥의 감탕파기전투로 부글부글 끓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을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바닥파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헌일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갔다.

일군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앞세울 메고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운반실적이자 생산실적이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바닥파기실적이 오르는데 맞게 운반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고 진행해나갔다. 이와 함께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이 창조되도록 하였다.

농장의 선전선동수단들이 총동원되여 전투장을 들었다놓았다. 속보판의 힘있는 글발들과 포전방송기재에서 울려나오는 적동적인 호소는 바닥파기전투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제6작업반의 바닥파기실적이 시간을 다투며 뛰어올랐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전투를 앞두고 정대, 함마 등 작업도구들을 충분히 준비해놓았다. 이에 기초하여 로력조직을 짜고들었다.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한덩어리가 되여 얼음장을 까내고 부식질함량이 풍부한 감탕을 하루 50여톤 파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과학농사의 성과도 높은 지력에 의해 담보된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제7작업반의 농장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맡겨진 전투과제를 매일 넘쳐수행하였다. 제4작업반에서는 트락또르, 달구지를 비롯한 각종 운반수단들의 리용률을 높여 며칠동안에 200여톤의 감탕을 논밭에 실어냈다.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열풍이 고조되는 속에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건장한 전투를 벌려 매일 수십톤의 감탕을 파내였다.

일군들은 바닥파기전투가 벌어지는 속에서도 가정들의 퇴적장바닥흙을 논밭에 실어내기 위한 사업도 내밀어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이상의 거름생산실적을 올린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신심드높이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전투를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방 영 진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안변군 사정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질좋은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새해농사차비전투에 떨쳐나선 은파군 류정협동농장 제4작업반의 농장원들이 더 많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작업반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이 영농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포전에 낼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흙보산비료생산에서 중요한것은 량과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농장원들에게 흙보산비료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모든 논밭을 옥토로 만들어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일 불같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떨쳐나선 작업반원들은 원료혼합과 온도보장 등 흙보산비료생산의 모든 공정들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고있다.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작업반의 흙보산비료생산기지에서는 많은 량의 흙보산비료가 생산되고있다.

본사기자

북남실무회담 진행

북남고위급회담합의에 따라 우리측의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및 겨울철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참가를 위한 북남실무회담이 1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전종수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통일부 차관 신해성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성과적으로 개최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의 규모, 활동계획과 남측이 편의를 보장하는 문제, 현지료해를 위한 선발대파견과 관련한 내용들이 반영되여있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관계되는 문제들은 량측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하여 풀어나간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또한 1월말부터 2월초사이에 마식령스키장과 금강산에서 진행하게 되는 북남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과 북남합동문화행사와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이 반영되여있다.

공동보도문에는 이밖에 겨울철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 장애자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을 파견하는것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들을 쌍방이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존경받는 청년일군

사회와 집단을 위하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여 집단의 존경을 받고있는 사람들속에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송림시)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정철동무**도 있다.

지난해 10월 송림시 네길동에 살고있는 한 청년동맹원의 집을 방문하였던 정철동무는 그의 가정형편을 구석구석 료해하고 대책들도 취해주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영예군인 남편의 뒤를 이어 딸자식을 훌륭히 키워 내세우고싶어하는 청년동맹원의 어머니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많은 학용품과 생활필수품도 마련해주었다. 그는 지주 청년동맹원이 다니는 학교와 련계를 가지고 학습정형도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들도 친부모의 심정으로 풀어주었다. 그렇게 하는것이 우리 사회가 아끼고 내세우는 영예군인의 딸자식을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아버지처럼 참된 인생길을 걷도록 이끌어주는 길이라는것을 잘 알고있기에 그는 지금도 영예군인가정을 위해 진정을 바쳐가고있다.

많은 청년일군들과 시안의 청년들이 그를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청년일군이라고 존경하며 그의 모범을 따라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고있다.

본사기자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2018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다음과 같다.

20일에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수 있다.

현실에서 주목되는 농업생산경험

새로운 유기생장활성촉진제 《기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

화학비료가 아니라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는것이 현대농업발전의 추세로 되고있다.

유기농법을 장려하는데서 최근년간 농업부문과 산림부문에서 호평을 받고있는 유기생장활성촉진제 《기림》이 부각된다.

이 촉진제는 인민군대의 어느 한 단위에서 자력자강의 힘,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첨단기술인 미생물공학기술, 전기전자 및 자동화공학기술에 기초하여 우리의 자재와 원료로 우리 나라의 풍토에 맞게 새로 연구개발한 제품이다.

《기림》은 농작물의 생육에 저해를 주는 미생물들을 살균 및 억균시키고 유리한 미생물들을 증식시켜 뿌리활성을 강화하며 아지치기와 빛합성능력을 높여주고 토양을 개량하여 소출을 끌어올리는 우리식의 새로운 첨가제이다.

이 유기생장활성촉진제는 세분화된 기능을 가진 여러가지 종류로 갈라져있다.

《기림1》호는 벼, 강냉이, 콩을 비롯한 알곡작물의 생육을 촉진시켜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유기농산첨가제이다. 이것을 리용하여 발효시킨 거름에는 유리한 미생물수가 폭발적으로 증식되고 영양성분함량이 높아 발효되비 1t이면 일반되비 10t과 맞먹는다고 한다. 토양의 미생물상을 개선하고 비가동성성분들을 가동화시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모판과 포전에서 일떳비료주기를 하면 살충살균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낸다.

《기림2》호는 생물형종자피복제이다. 이것을 종자처리에 리용하면 싹트는률을 높이고 싹트기날자를 앞당길뿐만아니라 뿌리활성을 높이고 병원성세균들을 억제하여 각종 작물의 뿌리썩음병, 모마름병을 예방하며 금병이를 비롯한 지하해충피해를 예방한다.

특히 가물견딜성, 랭해견딜성을 높여주며 염기성토양에서도 염피해를 받지 않고 작물이 잘 자라게 하여준다.

《기림3》호는 남새작물, 공예작물과 화초, 수목 등의 생육조건을 개선하여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한다. 특히 양묘부문에서 효과성이 뚜렷하다.

《기림4》호는 돼지, 토끼, 소, 가금류를 비롯한 집짐승들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높은 증체률을 얻기 위한 유기축산첨가제이다.

전문축산단위들과 개인축산에도 이 첨가제를 사용해본 결과 먹이단위를 낮추면서도 증체속도를 높이고 깨끗한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질좋은 고기를 생산할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이 첨가제의 중요한 특징은 생장촉진작용과 발효첨가제로서의 기능, 살충 및 살균작용능력을 다같이 가지고있는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보관과 사용이 간단하고 편리하여 농업근로자들이 큰 품을 들이지 않고도 리용할수 있는것이 또 하나의 우점이다. 때문에 알곡작물생산단위는 물론 남새와 양묘, 축산부문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지난해농사에서 성과를 거둔 여러 단위들에서의 경험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온천군 성현협동농장 기술일군의 말에 의하면 《기림》을 리용하니 모판단계에서부터 농작물의 잎색이 좋아지는것이 현저히 알렸으며 어물기를 촉진시키고 전알질량이 올랐다는것이다. 특히 화학비료를 적게 주고 이 첨가제만을 써보았는데 확실히 생산성이 높았다는것이다.

지력이 낮거나 염피해를 받는 단위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형권군 직설협동농장의 지력이 낮은 포전들, 온천군 석치협동농장의 염피해를 심하게 받던 땅에서 《기림》을 리용하여 지력을 개선하고 알곡소출을 올리는데서 크게 덕을 보았다고 한다.

문천시 남창협동농장과 미루벌지대의 신계군 화성협동농장 일군들과 기술일군들, 초급일군들의 이야기도 한결같았다. 농작물과 토양에 좋은 《보약》이라는것이였다.

증산군산림경영소에서 《기림》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병피해를 방지하고 튼튼한 나무모를 키워낼수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유기생장활성촉진제 《기림》이 연구개발되여 현실에 도입되기까지에는 조강철동무가 사업하는 인민군대 어느 한 단위 젊은 연구사들의 피타는 탐구와 노력이 깃들어있다. 이들은 여러해동안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를 신념으로 새겨안고 우리의 자원으로 더 좋은 우리의것을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색하고 실천하였다.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자강도,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각지의 농업생산단위들에서 도입시험을 진행하고 우월성이 증명된 이 제품은 농업성과학기술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성과로 인정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로 등록되였다.

지금 개발력량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적은 로력과 품으로 높은 생산성을 담보하면서 유기농법, 다수확농법, 과학축산에 이바지할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 나라의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어디서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농업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우리의것을 개발창조하고 농업생산단위들이 현실에서 우월성이 검증된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들을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일 때 경제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전진을 가져올수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자녀교양에 힘을 넣어 사랑하는 자식들을 조국앞에 떳떳이 내세우리

땅크병아들과 어머니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직맹이동해설강사 강문향동무의 생활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언행과 생활의 모든 계기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교양과정으로 되게 하여 아들딸들을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주인공들로 훌륭히 키우며 가정을 혁명적인 군인가정, 과학자가정, 애국자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전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전기부속품공장 문화선전실에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직맹이동해설강사 강문향동무에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사람들의 축하를 받은 그날 강문향동무는 잠들수 없었다. 기쁜 순간에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는것은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때문이리라. 그날 강문향동무의 머리속에 제일먼저 떠오른것은 땅크병이 된 아들의 모습이였다.

강문향동무의 외아들인 김천룡은 지난해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였다.

자식이 잘되길 바라는것은 이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소원이다. 강문향동무도 같았다. 그는 아들이 조국의 참된 아들이 되기를 바랐다.

그의 남편은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로동자이다. 그는 아들이 어릴적부터 아버지의 기름묻은 손을 제일 큰 긍지로 간직하도록 했다. 그의 가정의 벽면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온정어린 친필서한이 모셔져있다.

어느해 집벽면에 모신 친필서한앞에서 《나도 크면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나요?》라고 묻는 어린 아들에게 강문향동무는 너무 기뻐 말하였다.

《아무렴, 될수 있구말구.》

소중한 꿈을 안은 아들앞에 그들부부는 언제나 성실한 모습으로 나섰다. 남편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혁신자로 이름떨쳤고 그는 녀맹해설대원으로 활동하며 녀맹사업에 앞장섰다. 사람들속에서는 그들부부에 대한 칭찬이 그칠줄 몰랐고 속보판에도 이름이 큼직하게 나붙었다. 력천시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는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강문향동무는 건설장을 찾고 또 찾았다. 이런 그의 모습은 어린 아들에게 키보다 먼저 보답의 마음이 자라도록 한 훌륭한 본보기이고 거울이였다.

어느날 텔레비죤화면으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방문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을 뵈온 아들이 인민군대아저씨들에게 더 많은 《소년》호땅크를 보내주기 위해 과철을 모을 결심을 터놓았다.

그때부터 그들부부는 맡은 일로 바쁜 속에서도 학교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아들이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고 과철수집에 앞장서도록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렸다. 휴식일이면 아들과 함께 력천시를 매주밟듯 하며 과철을 모아들였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어느해 추운 겨울이였다. 하루공부를 마친 아들이 그날만은 과철수집을 그만두자고 했다. 이런 궂은 날씨에 하루쯤 과철수집을 그만둔다고 누가 우릴 욕하겠는가고 하는 아들에게 강문향동무는 준절히 말하였다.

《그렇게 나약해가지고서는 〈소년〉호땅크는커녕 아무 일도 못한다. 이제부턴 과철이라는 말을 입밖에도 꺼내지 말거라.》

이 말을 남긴채 손수레를 끌고 집문밖을 나서는 그의 뒤를 세찬 눈보라가 윙윙 소리치며 따라섰다. 후날 아들은 말했다고 한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려면 궂은 날, 마른날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처음 깨달았다고.

그렇게 마련한 과철이였다. 다음해 강문향동무는 아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을 맞으며 수십t의 과철을 싣고 천리마의 고향 강선으로 떠났다. 강선길은 그와 아들에게 있어서 한생토록 잊지 못할 귀중한 체험으로 되였다.

우리는 여기에 강문향동무의 아들이 그날의 체험을 쓴 일기의 한토막을 전한다.

《머칠째 쏟아지는 무더기비에 다리가 끊어져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앞에 두고 자동차가 멎어섰다. 우리앞에 수십대의 자동차들이 늘어서있었다. 얼마후 림시다리가 놓여지자 교통보안원아저씨는 우리 자동차를 제일먼저 통과시켰다.

나어린 소년단원이 〈소년〉호땅크를 만들 과철을 싣고 강선로동계급을 찾아간다는것을 알게 된 운전사아저씨들이 우리 차부터 먼저 떠나보내야 한다고 너도나도 말했던것이다.

그런데 다리를 넘어선 자동차는 얼마 못가 또다시 멈춰섰다. 깊은 밤인데다가 온통 불천지여서 길이 어디인지 알수 없었던것이다. 이때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살을 헤치며 손에 삽을 든 사람이 우리앞에 나타났다. 큰 물에 논뚝이 걱정되여 나온 할아버지였는데 그는 온몸을 적시다싶이 앞서 걸으며 우리 자동차를 안내했다. 헤여질무렵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나에게 할아버지는 말했다.

〈정말 용타. 어서 커서 용감한 인민군대가 되거라. 락동강에서 돌아서야 했던 우리 전쟁로병들의 한을 너희들이 풀어야 할게 아니냐.〉

강선길에서 만난 이름도 모를 운전사아저씨들과 전쟁로병할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우리 나라에는 어디에 가나 이런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해주었다. 앞으로 나는 그 고마운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일도 더 많이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꼭 기쁨을 드리겠다.…》

소년은 그날의 맹세를 지켰다. 그해 40여t의 과철을 모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보내준 자랑을 안고 그는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바로 그 편지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필까지 보내주실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앞으로 학습과 생활에서도 모범이 되고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서한을 받아안던 날 온 가족은 솟구치는 격정으로 두볼을 뜨겁게 적시였다.

그후 강문향동무의 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과 원군사업에 앞장섬으로써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받고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대표로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지난해 고급중학교졸업을 앞두고 7.15최우등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닌 그는 부모에게 말하였다.

《대학공부도 좋지만 난 무쇠철갑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결사옹위하는 땅크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문향동무의 아들은 땅크병이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감사를 받아안은 날 강문향동무는 초소의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총대로 결사옹위해나가는 아들에게 뻣뻣한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겠다고.

어머니는 언제나 자식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모범이 되여야 하는것이다.

본사기자 리남호

첫 교양자

◇ 훌륭한 사람의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

안주종이공장에서 혁신자로 소문난 당세포위원장 김은식동무는 안주시 영웅안주고급중학교의 19번째 영웅이다. 그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영웅이 되였다. 어떻게 영웅이 될수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힘겨울 때마다 남보다 먼저 일터로 나가고 남보다 먼저 한삽 더 떠야 한다고 당부하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생각했습니다.》

영웅도 명인도 그뒤에는 인생길을 바로 가라고 손잡아 이끌어준 훌륭한 부모가 있다. 넘어질세라, 길을 헛들세라 첫걸음을 떼여주던 그때처럼 부모는 자식의 한생의 교양자가 되여야 한다.

◇ 자녀들을 잘 키우는것은 부모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중요한 임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모가 자식들을 미래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워야 진정한 아버지, 어머니로 될수 있으며 그러한 사람만이 당과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한 애국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항일혁명투사 마동희동지를 낳아키운 장길부어머니는 한생을 값있게 산 혁명가의 어머니이다. 그는 자기 아들이 적앞에 굴복하지 않고 생을 마친것을 장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의 생명보다도 조국과 인민, 혁명을 더 귀중히 여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모든 어머니들이 장길부어머니처럼 자기 아들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한다면 아이들이 다 훌륭하게 자라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은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기둥이며 주인공들이다.

부모들은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과 함께 자녀들을 조국앞에 훌륭히 키워 내세워야 할 시대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량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 사람이 진실로 당에 충실한 사람이며 바로 키기에 래일을 위한 참다운 헌신이 있다.

◇ 자식들을 혁명가로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의 단순한 보육자가 아니다. 조국의 아들딸,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교양자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이 땅의 수천수만 애국자들의 인생의 갈피마다에는 고귀한 혁명정신을 유산처럼 물려준 훌륭한 부모들의 남모르는 헌신이 새겨져있다.

혁명의 계주봉을 넘겨받아야 할 우리 혁명의 교대자들인 새 세대들에게 가장 좋은 교양은 부모의 실천적모범이다.

부모는 조국과 혁명앞에 떳떳하기 위하여 애국충정으로 삶을 빛내이고 자식들에게는 그 부모가 인생의 거울이 될 때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은 더욱 꽃꽂이 이어지게 될것이다. 그것은 곧 우리 혁명의 미래와 승리에 대한 담보로 된다.

영웅들의 추억

혁신자의 가슴속에 새겨진 당부

1971년 한해동안에 6개년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던 처녀정방공, 그가 바로 24살에 로력영웅이 된 사리원방직공장 직장 리옥선동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은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첫째가는 교양자입니다.》

중학교졸업을 앞두고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소식에 접하였을 때 그는 정말 생각이 많았다. 평범한 직포공처녀를 천리마기수,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시며 그와 같은 혁신자들이 한사람이 아니라 몇백, 몇천명으로 늘어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자자구구 새겨볼수록 그는 잠들수 없었다. 그 직포공과 같은 천리마기수가 되고싶었다. 그러나 선뜻 결심할수 없었다. 최우등생이였던 그에게는 대학에로의 길도 열려져있었던것이다.

당시 사리원에는 방직공장이 새로 일떠서고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일곱 자식을 키우느라 늘 바빴지만 누가 보건말건 스스로 건설장에 지원로동을 나가군 하였다. 어느날 리옥선동무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래일 저녁 건설장에서 일하고나면 힘들지 않은가고 물었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해방전 나는 가난한 소작농의 딸이였다. 새옷이란 꿈에서도 생각할수 없었지.

너희들이 한날한시에 새 교복을 입고 학교로 달려가던 모습을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구나. 자라는 키에 꼭 맞게 철따라 새 교복까지 지어입히며 이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다 대신하느라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우리 수령님이 고마울수록 자나깨나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그로부터 얼마후 그는 어머니가 지원로동을 나가군 하던 그 방직공장의 로동자가 되였다.

무슨 일이든지 이악하게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보답할줄 아는 사람이 되여야 한다던 어머니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마침내 그는 우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 평양의 그 직포공처녀와 같은 혁신자, 영웅이 되였다.

오늘도 영웅직장장의 가슴속에는 40여년전 어머니의 그 당부가 깊이 간직되여있다고 한다.

《보답할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잊을수 없는 모습

《저는 7남매의 넷째로 태여났습니다.》

올해 75살인 로력영웅이며 인민교원인 3중영예의 붉은기 락랑구역 승리고급중학교 교장 김석렬동무의 추억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설음과 가난에 찌들었던 그의 가정에 웃음이 꽃피기 시작한것은 조국해방을 맞은 그날부터였다. 8.15가 그의 어머니에게 가져다준 기쁨중의 기쁨은 자식들을 마음껏 공부시킬수 있는것이였다. 어머니는 늘 자식들에게 《공부를 잘해서 고마우신 김일성장군님께 보답해야 한다.》고 당부하군 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머니는 인민군대원호에 두팔걷고나섰다. 그런데 어느날 어머니가 자기 집에서는 인민군병사들에게 밥을 지어주지 못하겠다고 하였을 때 그의 자식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녀맹위원장에게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하였다.

《인민군병사들이 우리 애들때문에 밥을 다 들지 못해요. 차라리 제가 다른 집에 가서 밥을 지어주면 안될가요?》

인민군대를 친자식보다 더 위해주던 어머니의 그 마음은 후날 김석렬동무가 모범군인으로 되게 한 자양분이 되였고 손자들도 최전방에서 청춘시절을 빛내이게 하였다.

그가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하여 오랜 세월 리용한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여주는 일지와 부모들의 청춘시절자료집은 학생교육과 교양에서 모범인 승리고급중학교가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인민군대집단탄원의 첫 봉화를 든 학교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상기해보게 한다.

지난 40여년간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 조국앞에 내세운 영웅인민교원, 그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

본사기자 조향선

어린 싹과 자양분

와우도구역 마산동 1인민반 고승혁동무의 가정

학교교육은 가정교육과 결합될 때에만 응당한 결실을 맺을수 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육성의 첫 학교이고 부모는 인생의 첫 스승이라는 말도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의 성장에서 가정교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해전 어느날 밤이였다. 와우도구역 마산동 1인민반 고승혁동무의 집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글쎄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유미의 가슴속에서 이런 생각이 움트고있는줄은 미처 몰랐어요.》

자책어린 안해의 말을 들으며 소학교에 다니는 딸의 학습장을 펼쳐보던 고승혁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학습장에는 어려편의 동시들이 적혀있었다. 비록 어설프긴 했지만 동심으로 감수하는 시대와 생활에 대한 진실한 감정이 엿보였다. 자식의 마음속에 움터나는 소중한 싹을 더욱 충실히 자래워주고싶었다.

《우리 유미가 창작의 나래를 활짝 펼칠수 있게 해줍시다.》

그들은 생활의 모든 계기들이 딸에 대한 옳바른 교양이 되고 풍부한 감정정서를 축적할수 있는 바탕이 되도록 하는데로 지향시켜나갔다. 유미가 즐겨걷는 등교길과 해마다 받아안는 사랑의 선물들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들의 다심한 은정에 대해 그리고 《소나무》책가방과 5점꽃송이가 방실 웃는 민들레학습장에 실려있는 크나큰 행복의 무게에 대하여 들려주는 부모의 이야기는 유미에게 자기가 안겨사는 따사로운 품에 대해 더 잘 알게 하였다.

고승혁동무는 남조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딸과 함께 찾아가 충정의 한마음을 바치였다. 그의 가정에서 마련하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과 삼지연군무리기전투장에 보내주는 많은 지원물자들속에는 유미가 쓴 수십통의 편지도 들어있었다.

생활을 보다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고 아름답게 구가하려는 유미의 열의가 나날이 높아졌다. 그것이 그대로 《꽃속에 모시자》, 《함께 담아보내요》와 같은 동시들에 담겨졌다.

방학이 되면 고승혁동무는 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딸의 일과표를 작성하는데 많은 품을 넣군 한다. 올해 겨울방학기간에도 그는 유미가 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맑고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학습, 좋은일하기, 영예군인가정도와주기 등 하루하루의 일과표를 교양적의의가 크도록 면밀히 따져보며 일과표를 만들었다.

부모의 세심한 관심과 옳바른 교양속에서 키도 마음도 어엿이 자란 유미는 학습과 조직생활에서도 모범일뿐아니라 도덕이 맑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것으로 하여 마을사람들과 동무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나라 가정의 건강과 행복, 성과와 번영을 축원하며 우리 어린이들의 새해의 소원과 우리 인민모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새겨보며 고승혁동무와 그의 안해는 당과 조국앞에 지닌 자기들의 임무를 길이 자각하고있다.

본사기자 조경철

방선에서 온 편지를 받은 날

부령군 읍 140인민반 복창남동무의 가정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오빠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딸의 명랑한 목소리에 온 집안식구가 모여앉았다.

전투정치훈련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는 자랑이 담겨진 편지의 구절구절은 온 집안에 웃음꽃을 활짝 피운다. 사진을 들고 돌라보게 의젓해진 아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는 병사의 어머니며 오빠의 소식을 기다려온 동생의 얼굴에도 기쁨이 한껏 넘친다.

부모와 모교의 스승들, 동무들의 당부와 환송을 받으며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던 때가 어제같은데 어엿한 병사로 자랐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들은 초소의 자식에게 당부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 가정의 행복도, 조국의 무궁한 번영도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군사복무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여가라고.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인민소비품생산성과 계속 확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새해전투의 첫걸음을 내짚은 평양시지방공업관리국산하 공장들이 련속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를 전례없는 성과로 빛내일 목표밑에 과감한 증산돌격전을 벌리며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받들어 평양가방공장이 년초부터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아이들의 취미와 기호, 미감에 맞는 도안창작을 선행시키면서 우리의 원료, 자재로 형태와 색깔이 다양한 학생가방생산을 다그쳐 일정계획수행률을 110%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있다.

과학적인 경영전략을 세우고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식료공장들에서도 사회주의증산경쟁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강남, 력포, 삼석식료공장의 로동자들이 첫 전투에서부터 신들메를 바싹 조이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다.

각종 빵과 두부가공품을 쌍쌍생산하고있는 선교, 룡북식료공장에서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동대원, 락랑, 만경대식료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설비관리, 기술관리,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를 빛내이기 위해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고있는 평양시지방공업관리국산하 공장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증산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에 대한 증오로 가슴끓이며 천백배로 복수할 결의에 넘쳐있다. —경성군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로 되고있다.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떠나서 우리 인민의 자주적삶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혁명의 전진과 사회주의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계급교양관 강사들은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 당의 핵심들이며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속에 계급의식을 심어주는 교양자, 직업적인 혁명가들입니다.》

각지의 계급교양관 강사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준비시키는 중요한 임무가 자신들에게 맡겨져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오랜 세월 계급교양의 전초선에서 계급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원암리 밤나무골화약창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신천박물관 명예관장 주상원동무는 미제의 야수적만행에 대한 력사의 고발장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복수심의 발원점인 신천박물관에 혁명초소를 정한 30여년전부터 지금까지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투철한 반미계급의식과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각지 계급교양관의 강사들

그는 신천박물관을 찾는 참관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해설강의를 실감있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쏟아부었으며 년로한 몸으로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 나가 연 13만여명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동강의를 진행하였다.

몇해전 신천박물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를 몸가까이 부르시고 원암리 밤나무골화약창고에서 살아난 강사동무가 수십년세월 이곳에서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가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은정깊은 말씀을 받아안은 주상원동무는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혁명의 계급진지를 억척같이 지켜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중앙계급교양관 강사 김선희동무도 지난 15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반미대결전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그는 신문과 도서들에서 6 000여건의 계급교양자료들을 발취하고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를 비롯한 10여건의 해설제강을 집필하여 강의에 리용하였으며 중앙계급교양관에 전시된 반경화, 람상, 사진자료들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강의를 생동하게 진행함으로써 참관자들에게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이며 놈들과는 반드시 결산해야 한다는 투철한 각오와 뎅세를 깊이 심어주었다.

지난 15년간 연 100만여명에 달하는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을 대상으로 1만 2 000여차에 달하는 강의를 진행한 함경남도계급교양관 강사 오경희동무는 반미교양에서 기본은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을 똑바로 알려주는것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이 사업에 힘을 넣었다.

그는 《함남땅을 피로 물들인 살인마》를 비롯한 130여건의 강의안을 작성하여 강의에 리용함으로써 계급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이였다. 이와 함께 새세대 강사들을 위한 시범강의, 기향발표회에 자주 출연하고 그들의 강의도 들어보면서 부족점을 제때에 고쳐주어 실무수준을 높여주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홍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계급교양주제의 예술선동을 배합한 이동해설강의도 활발히 진행한 그의 정열적인 활동은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원쑤격멸의 의지를 안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황해남도계급교양관 강사 리혜영, 정홍군계급교양관 강사 현정실동무들도 강의내용에 정통하며 구체적인 사실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실감있게 함으로써 참관자들에게 미제와 일제,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복수심,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깊이 심어주었다.

리혜영동무는 지난 13년간 구체적이고 생동한 자료들을 가지고 강의를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참관자들이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뼈에 새기도록 하였다. 특히 2009년 4월 해주시일대에서 진행된 170여구의 유해발굴사업에 참가하여 직접 체험한 놈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자료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방해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는 계급적원쑤들의 죄행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실감있게 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가도록 하였다.

현정실동무는 해방전 일제가 우리 로동자들에게 강제로 신기고 일을 시킨 죄장화를 비롯하여 많은 증거물들과 자료들을 발굴고증하고 원쑤들의 만행을 폭로하는 체험자, 목격자들의 피의 절규를 흡음하여 강의에 리용하면서 지난 14년간 5 000여차의 강의를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지난해 유엔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꿈꾼 늙다리미치광이 트럼프의 망발에 온 나라가 격노의 함성으로 끓어번질 때에도 그는 미제에 대한 복수의 피를 더욱 끓게 하는 강의안들을 자체로 집필하여 교양사업에 리용하였다.

또한 군계급교양관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꾸리는 개건보수공사가 벌어질 때에는 여러차례 가정에서 많은 후방물자를 마련해가지고나와 로동자들을 고무해주었다.

이밖에도 신천박물관 강사 정근성, 선봉지구계급교양관 강사 김련희, 대흥군계급교양관 강사 허은애동무를 비롯하여 각지 계급교양관 강사들이 현시기 류례없는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의 야수성과 포악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에게 깊이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미제와의 판가리결사전에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을 반제반미투쟁의 전위투사들로 키울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 이런 직업적인 혁명가, 최고사령부의 붉은 선동원, 선전원들이 있어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는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있다.

본사기자 허명숙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아갈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가 세계적으로 계속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세계의 언론들속에서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숭고한 인덕과 인민관을 지니신 애민형의 정치가》, 《따뜻한 인정미를 지니신 인민적인 정치가》, 《조선의 국방력을 비상히 강화하시는 령도자》, 《미국을 눈아래로 굽어보며 련속적인 강타로 수세에 몰아넣는 젊으신 령수》…

미국의 인터네트통신 《NK NEWS》는 신년사를 하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매우 신심에 넘쳐있었으며 신년사를 통하여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난관들을 성과적으로 타개해나가고있다는것을 과시하였다고 전하였다.

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 포크》는 《리상적인 국가지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과연 어떤분이신가.

한마디로 그이는 훌륭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현시대의 가장 리상적인 국가지도자이시다. 조선인민은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어버이로, 스승으로 따르며 흠모하고있다. 그이는 세련된 령도와 비상한 전개력, 완강한 투지를 지닌 실천가형의 지도자이시다. 다른 나라같으면 국가존망자체를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밑에 조선의 국력은 날로 강해지고있다.》

정확한 평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 봉쇄책동속에서도 강인담대한 배짱으로 억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였다. 불철주야의 희생적인 헌신으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그러시고도 자신께서 바치신 그 모든 로고를 고스란히 묻어두시고 겸쑥이는 난관과 시련속에서 언제나 마음을 같이하며 당의 결심을 지지하고 받들어온 인민에게 경의를 표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로 일관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리념으로 삼으시고 무슨 일에서나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분, 건물을 하나 지어도,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편리해하는가 하는것부터 알아보시며 인민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하는것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시는 천출위인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이시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하늘처럼 믿고 따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예리한 통찰력과 해박한 지식, 생산장성과 현대화의 표술을 밝혀주시는 선견지명에 의해 나라의 곳곳에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가 실현된 본보기공장, 기업소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선진적인 경영방법과 경험이 전국에 일반화되고있다. 경공업이 눈에 띄게 발전하여 인민생활이 날로 향상되고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여 우리 국가는 첨단급의 전략무기들과 수소탄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급부상하였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듯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평화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기에 우리 인민이 일일천추로 바라고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마련해주시였다.

로씨야의 한 출판사의 인터네트홈페지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기상》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실리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현 세계의 가장 젊으신 국가령도자이시다.

그이의 기상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무슨 일이나 단숨에, 전격적으로 해제끼는것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특질이다. 기존의 공식과 리론에 구애되지 않고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며 비약하는 파감한 돌진의 기상이다. 이룩된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련속공격의 기상에 국제사회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천하를 뒤흔드는 초강경의 기상을 지니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결코 남의 도움을 받거나 조건이 좋아서 그 모든것을 이룩한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 《절멸》을 노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는 속에서 이루어냈다.

특정국가들이 전횡을 일삼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내리누르는 불공평한 국제질서가 허용되는 세계에서 그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의 변천은 너무나도 오래동안 정의를 무참하게 유린해온 살벌한 폭제의 핵에 대한 단호한 징벌이다.

그것은 결코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

여론들이 최근년간 조선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지도하에 몰라보게 변모되여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였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이시야말로 강의한 신념과 배짱, 자주적대가 강한 절세의 위인이시다. 세계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욱 부강한 모습으로 솟구쳐오를 조선의 앞날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또한 비길데 없으며 우리는 기세충천하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자 세상에 없다. 그 무엇으로써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한다. 자강력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시련과 난관을 돌파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는 백배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올해에도 새로운 승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 말것이다.

조 태 범

대결을 부추기는 고약한 언동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와 대범한 용단으로 하여 북남사이에 대화의 문이 열린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는 모처럼 마련된 좋은 기회가 성당한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쓰레기언론들은 갖은 악담질을 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조치들을 중상모독하고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있다.

남조선보수언론들은 우리의 북남대화제의와 성의있는 노력을 《화전량면전술》로 걸고드는가 하면 미국파의 《동맹》에 《균렬을 만들려는 리간질》에 경계하라고 당국에 훈시질을 해대고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풋내기들을 마이크앞에 세우고 우리 응원단과 예술단파견이 《선전장으로 활용하기 위한것》이라고 악청을 돋구고 북남고위급회담에 대해서는 《제재풀 회피》하기 위한것이라는 황당한 수작질도 늘어놓고있다.

동족이 하는 일이라면 무턱대고 시비질하고 헐뜯는 남조선보수언론들의 고약하고 비뚤어진 속통은 갈데 없다. 남조선보수언론들의 추태는 저들의 체질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낸것으로서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해치고 대결을 고취하기 위한 고의적인 망동이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겨레의 통일념원을 성취하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그런데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은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조치들을 환영하지는 못할망정 도리여 동족을 색안경을 끼고 대하면서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터무니없는 악담질을 일삼고있으니 이것을 놓고서야 어떻게 민족을 위한 언론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남조선의 보수매문가들이 우리에 대한 적대의식과 거부감이 골수에까지 박 들어찬 대결광들이라는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민족의 단합과 북남관계개선이라면 한사코 반대하며 그에 훼방을 놓는 온갖 못된짓을 다한 악질적인 비방군들이 바로 이자들이다.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진행되고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여 온 겨레가 환희로 들끓고있을 때 그 무슨 《통일전선전략》이니, 《끌려다닌다.》느니 하며 대세의 흐름에 도전해나선 반통일광신자들도 보수매문가들이고 북남대화와 협력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불순한 모략보도, 날조보도에 미쳐날뛴 장본인도 보수언론들이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이 보수언론들을 동족대결파 반통일의 피커름으로 살찌운 죄악의 기생충들로 락인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오늘 북남관계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그가 누구이든 민족의 피와 얼이 있다면 모처럼 찾아온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소중히 여기고 그 불씨를 살려나가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정의의 기치를 들고 여론을 주도해야 할 언론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언론들은 언론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다 팽개치고 반통일세력의 대변자가 되여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망쳐놓으려고 지랄발광하고있다.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저들 특정집단의 리익과 더러운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해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에 도전해나서는 남조선보수언론들의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바로 남조선보수언론들의 대결선동때문에 우리 겨레의 통일념원이 우롱당하고 북남관계의 극점이 심화되고있는것이다.

북남관계의 력사는 남조선보수언론들의 작간질때문에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에 불신과 대립의 찬바람이 불어쳤던적이 결코 한두번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허밑에 도끼가 있고 지각없는 붓질이 화를 불아오는 법이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데 불과한 북남관계가 과거의 불미스러운 전철을 밟지 않게 하자면 언행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지금의 정세국면이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태에로 전환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릇된 여론조작에 떠여달리면서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에 억행한자들이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보수언론들은 온 겨레가 엄정한 시선으로 자기들을 주시하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력사의 죄인을 징벌하기 위한 투쟁

남조선에서 집권기간 천추에 용납 못할 각종 특대형범죄행위들을 지지른 박근혜역도에게 기어이 력사의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려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 고조되고있다.

박근혜패당이 미국, 일본상전들과 공모결탁하여 조작해낸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가 발표되고 숨겨져있던 《합의》의 추악한 내막이 폭로된것을 계기로 괴뢰역도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는 더한층 고조되였다.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은 도처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들을 열고 치욕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굴욕적인 《합의》를 전면무효화하고 박근혜와 같은 천하역적의 무리들을 반드시 매장해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근혜역도가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해 개성공업지구를 제멋대로 폐쇄한 사실이 드러난것도 남조선인민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얼마전 남조선의 개성공업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에서 참가자들은 개성공업지구가동중단조치가 당시 박근혜의 독단적인 지시에 따라 취해진것이었다고 폭로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줄지어 망하게 한 장본인인 박근혜를 징벌하고야말 의지를 보여주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박근혜역도를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적폐청산투쟁을 계속 이어가고있는것은 력사와 민족앞에 저지른 역도의 범죄가 너무도 크고 엄청난것이기때문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청와대안방에 들고앉아 파쑈독재와 부정부패행위에 얼을 올리며 사회를 온통 혼란과 파국상태에 빠뜨린 박근혜역도의 죄행을 고발하는 증거자료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련속 드러나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가 정보원으로부터 360만US$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아먹은 사실이 폭로된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과정에 역도가 그 돈을 최순실 등과 함께 저들의 리기적목적에 랑진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재판정에서 특대형정치추문사건에 대한 일체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느니, 《자신은 정치적희생물》이라느니 하고 변명하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던 박근혜역도는 자기가 정보원으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밝혀지자 변호사를 불러들이고 꽁꽁이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조금이라도 무마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죄의식은 꼬물만큼도 없이 살구멍만 찾으면서 갈수록 역스럽게 놀아대는 철면피한의 발악적추태를 두고 남조선 각계는 박근혜야말로 정말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중죄인이라고 비난하고있다.

《권한을 람용한 사실이 없다.》, 《돈을 한푼도 사취한적이 없다.》,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줴쳐대던 박근혜역도의 수작질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이 낱낱이 폭로된것으로 하여 역도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남조선각계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가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국정》롱단의 실체가 더욱 드러나고있다.》, 《더는 회피할수 없는 특대형범죄이다.》, 《하루빨리 박근혜를 심판하라.》고 웨치고있다.

박근혜역도의 죄악의 진상이 드러날수록 가증스러운 천하악녀를 민중의 심판대, 력사의 교수대에 올려세우고 가차없이 징벌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의지는 더욱 굳세여지고있다.

김 충 성

반통일원흉의 정체는 가리울수 없다

우리의 새로운 북남관계개선방침은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우리의 주동적인 제안과 진정어린 노력으로 마련된 북남고위급회담이 좋은 결실을 거두어 관계개선의 첫 돌파구가 열리였다.

그런데 긴장완화에로 지향되는 조선반도의 이 정세흐름을 못마땅히 여기며 북남대결을 계속 격화시키려고 지랄발광하는 가증스러운 외세가 있다. 다름아닌 미국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군부패거리들은 얼마전 일본에 있는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와 미본토에 있는 핵항공모함 《칼빈손》호의 조선반도전개에 대해 공표하였다. 이어 핵항공모함 《스테니스》호를 서태평양지역에 투입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과 일본에 있는 미공군기지들에 미본토로부터 각종 전투기와 병력들을 증강배치하였으며 유사시 1개 사단규모의 미해병대부력을 상륙시킬수 있는 3개의 상륙직승기모함단을 조선반도주변에 끌어들이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가로막고 대결기운을 조장하기 위해 벌리고있는 불순한 망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의 새로운 북남관계개선방침이 제시된 첫날부터 조선반도정세를 불안한 눈길로 지켜보며 심술사납게 놀아댔다.

미국의 정계인물들은 《통남봉미전술》이니, 《리간질》이니 하며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을 터무니없이 헐뜯었다. 이자들은 지어 우리가 추가적인 《미싸일도발》에 다시 나설것이라는 속뒤들린 수작까지 내댔었다.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게 되였을 때에는 《제재압박을 약화시키려는 술책》이라느니, 북남관계개선은 핵문제와 《별도로 추진될수 없다.》느니 하고 고아대면서 남조선당국에 로골적인 압력을 가하였다. 저들의 이런 방해책동속에서도 북남고위급회담이 예상외의 성과를 내자 트럼프패거리들은 당황망조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대조선압박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어처구니없는 나발로 북남공동의 결과물을 가로채는 추태를 부리였다. 지금도 트럼프패당은 우리 공화국이 《핵과 탄도미싸일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완화하지 않을것이라고 뇌까리며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뿌리고있다.

현 사태는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한 미국의 속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격화기운을 계속 고취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차단봉을 내리며 나아가서 전조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다.

미국의 이런 흉심은 결코 어제 오늘에만 발로된것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력대로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과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갖은 훼방질을 다하여왔다.

북남대결을 심화시키면서 그것을 통해 저들의 침략적리익을 추구해온 미국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온 겨레가 자주통일의 환희와 희망에 넘쳐있던 때에 《핵문제해결》을 운운하며 북남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라고 남조선당국을 강박한것도 미국이며 북남사이의 철도 및 도로련결사업에 대해 그 무슨 《비가》문제를 들고나와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한 장본인도 미국이다. 당시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에 때아닌 폭설들이 생겨난것은 남의 집 잔치상에 감놓아라 배놓아라 하는 격으로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제멋대로 간섭하며 후안무치하게 놀아댄 미국의 악랄한 방해책동때문이였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면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것은 미국의 고악한 악습이다.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북남관계에 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불고있는 지금 그것을 막아보려는 반통일원흉의 못된 버릇이 또다시 발작하고있는것이다.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적인 책동은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을 극도로 격화시키는데로 집중되고있다. 지금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저들의 해, 공군무력을 대대적으로 집결시키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평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항시적으로 격화시키면서 그것을 구실로 남조선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계속 강점하고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을 실현하며 막대한 군사장비들을 팔아먹어 재미를 채우려는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모험적인 선제타격기도와 떼여놓고 볼수 없는 사실이다.

폭로된데 의하면 미제호전광들은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이 나타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공격작전계획인 《코피작전》방안을 은밀히 추진하고있다. 미본토의 산악보병사단들과 남조선의 오산, 군산기지들에 투입된 특수작전부대들은 이 작전방안에 따른 훈련을 본격적으로 벌리고있다. 이런 속에 무지스럽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미국의 미치광이광대 트럼프는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며 분별없이 헤덤비고있다. 미국이 리성잃은 늙다리전쟁미치광이에게 끌려 멸망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빠지고있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이 폭제의 핵을 휘두르며 우리에게 일방적인 핵위협을 가하던 시대는 영원히 끝장났다.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도전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는 강위력한 억제력을 갖춘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이다.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전쟁열로 들뜬 머리를 식히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감히 해치려고 덤벼든다면 그것은 저들자신의 종국적멸망을 부르는 어리석은 자살망동으로 되고말것이다.

본사기자 장 정 철

남조선 각계층

리명박역도의 구속을 요구하는 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서울의 소리》에 의하면 《MB잡자 특공대》, 리명박근혜심판행동본부가 13일 서울에서 리명박역도의 구속을 요구하는 시위와 초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날의 투쟁에는 남조선 전지역에서 모여온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리명박을 구속하라》, 《초불로 쥐잡자 MB구속촉구》, 《MB구속! 적폐청산!》이라고 쓴 프랑카드와 구호판들을 든 투쟁참가자들은 리명박의 죄행을 단죄하며 역도의 집으로 행진해갔다.

역도의 집가까이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리명박의 새로운 범죄가 밝혀지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리명박이 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람용한 사건이 밝혀진것은 리명박, 박근혜집권기간의 범죄가 실제로 드러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역도들의 범죄를 뿌리채로 뽑아버려야 정의로운 사회를 세울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국정》을 롱락하고 법의 뒤에 숨어있는 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박근혜《정권》에로 이어진 적폐의 근원은 리명박이라고 단언하고 리명박은 권력을 악용하여 여론공작을 벌리고 《국정》을 롱락한 억적중의 억적, 용서할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이라고 성토하였다.

또한 역도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단죄하고 그들은 리명박을 구속하는것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것이다, 끝까지 적폐정당, 무역정당을 심판하고 남조선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리명박을 구속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말자고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계절성돌림감기

계절성돌림감기가 급속히 전파되고있다.

계절성돌림감기로 인한 호흡기질병으로 해마다 수십만명이 목숨을 잃고있다.

하지만 올해가 5 0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스빠냐독감(1918년)과 100만명을 사망하게 한 홍콩독감(1968년)이 발생한지 각각 100년, 50년이 되는 해인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은 이번 돌림감기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돌림감기는 북아메리카, 유럽, 동아시아지역은 물론 아프리카에까지 퍼지고있다. 인명피해도 늘어나고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십명 여명이 입원하였고 그중 30명이 사망하였다.

이번 돌림감기의 전파력이 강한 원인이 분석되였다.

우선 변종가능성이 높은 A형돌림감기의 류형에 대한 예측을 잘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각국이 그에 맞는 약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데 있다는것이다.

올해 세계보건기구는 북반구에서 B형돌림감기비루스가 전파될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A형돌림감기비루스가 퍼져나감으로써 각국의 보건부문은 제때에 대처할수 없게 되였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후과는 엄중할것이라고 한다.

본사기자 손 소 연

이스라엘이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고있다.

얼마전 이스라엘의 극우익적인 집권여당인 리쿠드당은 요르단강서안지역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것과 유태인정착촌건설을 계속할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 지역을 완전히 병합하여 제것으로 만들겠다는것이다. 그런가 하면 새해에 들어와 이스라엘국회는 《꾸드스의 전지역을 이스라엘의 불가분리적인 령토》로 한다는 날강도적인 법을 채택하였다. 이스라엘의 무당한 처사를 반대하여 투쟁에 나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한암만행의 도수도 극도에 달하고있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직후에 벌어지고있는 사태들이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말 이스라엘은 유네스코가 저들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있으며 유태인의 력사를 부정하는 결정들을 계속 채택하고있다고 하면서 기구에서 탈퇴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비법적인 령토강탈야망실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으로서의 본색을 또다시 낱낱이 드러내놓았다.

이스라엘은 국가라는것을 창건한 후 1년만인 1949년에 유네스코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유태복고주의야망에 물젖은 이스라엘은 세계정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는 배치되게 어리차례의 침략전쟁을 일으켜 아랍땅의 많은 지역을 강점하는 파렴치한 책동만을 일삼았다. 이로 하여 이스라엘은 기구내에서 늘 물리우기만 하였다.

지난 시기 유네스코에서는 팔레스티나문제가 정평리사회의와 총회의 고정안건으로 상정되여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결정과 결의들이 계속 채택되여왔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에 팔레스티나가 이스라엘의 강력한 반대와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성원국들의 찬성에 의해 기구성원국으로 정식 가입하였다. 2014년에는 이스라엘이 불순한 목적밑에 기구청사에서 조직하려던 도서전시회마저 아랍나라들의 반대로 취소되였다. 특히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이 각기 저들의 성지로 간주하고있는 꾸드스의 사원문제를 놓고 지난해 7월에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1차회의에서는 이 사원뿐아니라 헤브론의 옛 도시지구까지도 팔레스티나의 유산으로 등록한다는 결정이 채택되였다.

이스라엘이 불이 부어 삿대질도 해보고 돈주머니를 흔들며 치졸하게도 놀아보았지만 저들의 강도적요구가 통할리 만무하였다. 수년간 응당 물어야 할 기구회비마저 물지 않은 이스라엘은 기구총회때마다 결의권도 가지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유네스코에서 동네북신세가 되여 얻어맞기만 해온데 대해 앙심을 품고있던 이스라엘은 마침내 기구탈퇴라는 불망종짓으로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보려 한것이다.

이스라엘의 유네스코탈퇴는 미국의 부추김과 막후조종에 따른것이기도 하다.

《미국우선주의》의 미명하에 국제 및 지역협정들에서의 련이은 탈퇴를 선포함으로써 세계를 소란에 한 미국은 지난해 10월 아비브로부터 꾸드스로 옮긴다는 결정을 내렸다.

세계를 소란스럽게 하는 장본인

온 세계가 또다시 죽가마끓듯 하면서 미국의 결정을 비난, 배격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미 짜준 각본대로 유네스코에서 탈퇴함으로써 상전의 《고무》에 화답해나선것이다.

이렇듯 《정화종재자》의 가면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감행되는 미국의 후안무치한 비호두둔밑에 이스라엘은 기고만장하여 령토강탈야망실현에 더욱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중동평화가 실현될 전망은 더욱 암담해지고있다.

인류공동의 요구와 리익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오직 저들의 불순한 야망실현을 위해 미쳐돌아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세계에는 결코 평온이 깃들수 없다.

본사기자 안 철 권

각종 재해로 인한 세계적인 손실

지난해에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수많은 자연재해와 인적재해가 발생하여 1만 1 000여명이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되였다.

또한 3 060억US$어치의 경제적손실액이 초래되였다. 이것은 2016년에 비해 63% 늘어난것으로 된다.

제일 많은 손실을 입은 나라는 태풍 《하비》, 《이르마》, 《마리야》 등의 피해를 입은 미국으로서 그 손실액은 2005년이래 최대규모이라고 한다.

최근 스위스의 한 보험회사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81010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